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 부모인성과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

2018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하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발 간 사

최근 제주사회 공동체의 급격한 변동은 가족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변화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문제 및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공동체의 중요 가치로 보아왔던 ‘회복탄력성’이 중요 전환점에 직면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변화 및 가정문제는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제주 가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가족공동체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 가족공동체의 정체성 변화 및 지역사회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입각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부모들의 인성수준과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부모들의 인성수준은 총 8개 영역이 조사되었으며,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은 3개 대영역, 9개의 하위영역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및 연구는 제주 지역사회 가족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제주 지역 정체성에 대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제주지역 주민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제주 지역 정체성의 변화 연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에 힘써주신 현혜경 박사님과 부혜은 선생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가족공동체의 변화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문제 및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족공동체의 중요 가치로 보아왔던 ‘회복탄력성’이 중요 전환점에 직면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따라서 제주 가족공동체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가족공동체의 정체성 변화 및 지역사회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 청소년기는 심리, 정서적인 행동과 가치관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청소년들 스스로 자아개념과 삶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주 중요하다.
- 본 연구는 미래 제주사회의 긍정적 사회문화 풍토를 위해 자녀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또한 이것의 향상을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 환경인 인성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내 부모의 인성수준과 자녀의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의 인성 덕목들이 자녀의 회복탄력성 및 하위 요소(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연구범위

- 제주도내 부모의 인성수준과 자녀의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의 인성 덕목들이 자녀의 회복탄력성 및 하위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내 소재하는 고등학교(일반고 23곳, 특수목적고 2곳, 특성화고 5곳) 2학년 학생 및 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4. 연구기간

- 조사기간 : 2018년 6월 15일 ~ 7월 15일 / 1개월간
- 조사장소 : 조사대상 고등학교 각 학급 교실

5. 연구방법 및 절차

- 조사방법 : 구조화 및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집단 및 배포 조사 실시
- 표집방법 : 조사대상 각 고등학교별 2학년 1개 학급 무작위 선정 후 해당 학급의 전체 학생(조사일 기준 부재한 학생을

제외)을 선정(군집표본추출)

- 분석대상 표본 수 : 부모 445명, 학생 717명
 - 부모의 경우, 총 559명의 조사 표본 중 불성실 응답 114명을 제외한 총 445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학생의 경우, 총 823명의 조사 표본 중 불성실 응답 106명을 제외한 총 717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연구내용

-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445명의 조사 대상자 중 어머니가 응답해 준 경우는 76.2%(339명)이고, 아버지는 23.8%(106명)로 어머니가 응답해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47.9%(21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모의 연령은 50대 미만 67.4%, 50대 이상은 32.6%로 조사되었다. 학력에서는 대학 수료 및 졸업이 전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전문직, 교사, 공무원이 21.3%(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은 제주시 동지역(252명, 56.6%)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가구 월평균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이 35.5%(1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 거주기간은 대부분이 9년 이상(398명, 89.4%)으로 조사되었다.
- 부모의 인성 변수는 자기존중,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정의, 시민성 등 8개 영역별 5개 문항

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기인하여 분석한 결과, ① 자기존중은 응답자 특성에서 연령과 학력, 직업, 주거지역, 월 평균 소득, 제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과 자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② 배려와 소통은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회적 책임은 성별,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제주도 거주기간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④ 예의는 성별, 자녀수, 학력,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⑤ 자기조절은 성별, 자녀 수, 연령,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⑥ 정직과 용기는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⑦ 정의는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⑧ 시민성은 자녀수와 연령, 직업과 주거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부모들의 인성 변수 수준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① 부모들의 성별에 따라서는 배려와 소통, 자기조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② 자녀수에 따라서는 시민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시민성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③ 학력별로는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시민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④ 부모들의 직업에서는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의, 시민성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주거지역별로 부모들의 인성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⑥ 가구 월평균 소득별로 부모들의 인성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에서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인성수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부모들의 제주도 거주기간별로 인성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영역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회복탄력성 정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① 자기조절력에서 성별의 경우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는 감정조절력과 충동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원인분석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조절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한 결과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중 충동을 통제하는 정도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대인관계능력에서 성별의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에서는 세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은 제주시 동지역이 가장 높았고, 자아확장력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한 결과, 자아확장력이 가장 높았고, 공감능력, 소통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③ 긍정성에서 성별에서는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모든 영역에서 긍정 응답률의 비

율이 높았다. 주거지역에서는 생활만족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귀포시 동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순이었다. 또한 긍정성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 마음이,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3가지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조사하고 그 관계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의 관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은 대인관계능력($r=.638$)과 긍정성($r=.554$) 모두에서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대인관계능력은 긍정성($r=.704$)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 각 하위요인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하위 요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는 자아확장력과 생활만족도($r=.670$) 간의 관계이며, 다음으로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r=.657$), 공감능력과 소통능력($r=.645$), 감사와 자아확장력($r=.6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중 자아확장력이 긍정성 영역의 생활만족도와 감사 요인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상호간의 중요성도 함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세 가지 하위요인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과 성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력의 하위영역-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자기조절력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의 경우는 소통능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통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긍정성에서도 모든 하위 영역-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또한 남학생의 긍정성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과 주거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주거지역별 회복탄력성을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력의 원인분석력의 경우에만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인성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성 중 ‘예의’와 ‘자기조절’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예의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회복탄력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 개인의 성장이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즉, 어른의 성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7.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제주사회의 긍정적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것의 향상을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적 환경인 인성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필요한 실천적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청소년들과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기관 및 교육현장, 가정 및 사회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부모 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교육환경과 교육 정책 등 사회적 지지가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수행하는 역할이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 환경-교육기관 및 정책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긍정적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으로 미래 제주사회의 긍정적 자아상을 그려보는 때가 ‘지금’이라고 여겨진다. 그와 더불어 부모의 사회적 환경과 부모 개인의 인성 즉, 가족의 지지가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1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1. 부모 인성에 대한 선행 연구	3
2.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 연구	4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9
1. 연구방법	9
2. 분석틀	9
IV. 조사 개요	10
1. 조사 설계	10
2. 조사 내용	13
V. 조사 결과 및 해석	14
1. 제주지역 부모의 인성 정도	14
2. 제주지역 자녀의 회복탄력성 정도	59
3. 제주지역 부모의 인성과 자녀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88
VI. 결론 및 제언	93
1. 결론	93
2. 제언	96

참고문헌	98
Abstract	100
자문회의록	101
부록(설문지)	105

<표 목차>

<표 IV-1> 조사대상 고등학교 지역별 분포	10
<표 IV-2> 분석대상 표본 수(부모)	11
<표 IV-3> 분석대상 표본 수(학생)	12
<표 V-1> 부모의 인구 통계적 특성	15
<표 V-2>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16
<표 V-3> 바른 행동 모델로서의 정도	17
<표 V-4> 인성교육 활동 정도	17
<표 V-5> 인성교육 실시 방법	18
<표 V-6> 인성교육 실시의 어려운 점	19
<표 V-7> 부모 대상 인성교육 참석 정도	20
<표 V-8> 청소년 인성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 ..	20
<표 V-9> 영역별 인성 수준 빈도	22
<표 V-10> 부모의 인성 수준	24
<표 V-11> 부모의 자기존중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27
<표 V-12> 부모의 배려와 소통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29
<표 V-13> 부모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31
<표 V-14> 부모의 예의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33

<표 V-15> 부모의 자기조절 수준과 인구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35
<표 V-16> 부모의 정직과 용기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37
<표 V-17> 부모의 정의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39
<표 V-18> 부모의 시민성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41
<표 V-19> 인성 수준 요인별 상관분석	45
<표 V-20> 성별과 인성 수준 평균비교	48
<표 V-21> 자녀수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49
<표 V-22> 연령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50
<표 V-23> 학력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51
<표 V-24> 직업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53
<표 V-25> 주거지역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54
<표 V-26> 주거지역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55
<표 V-27> 가구 월평균소득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57
<표 V-28> 제주도 거주기간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58
<표 V-29> 청소년 인구 통계적 특성	60
<표 V-30>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지수 평균	61
<표 V-31> 청소년 회복탄력성의 영역별 지수 평균	62
<표 V-32> 자기조절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빈도	63
<표 V-33> 자기조절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교차분석	65

<표 V-34> 자기조절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수준 정도	66
<표 V-35>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빈도	67
<표 V-36> 대인관계능력의 회복탄력성 교차분석	69
<표 V-37>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응답 빈도	70
<표 V-38> 긍정성 영역의 회복탄력성 빈도	71
<표 V-39> 응답자 특성과 긍정성 영역의 교차분석	73
<표 V-40> 청소년의 긍정성 정도	74
<표 V-41> 회복탄력성 영역 간 상관분석	77
<표 V-42>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79
<표 V-43> 회복탄력성 영역과 성별 간의 평균비교	82
<표 V-44> 주거지역별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83
<표 V-45> 주거지역별(시·동·읍면)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	83
<표 V-46> 성별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84
<표 V-47> 주거지역별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85
<표 V-48> 주거지역별(시·동·읍면)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	86
<표 V-49> 인성수준과 회복탄력성과의 정준상관분석	89
<표 V-50> 인성수준 영역별 회복탄력성 간 편상관관계	90
<표 V-51> 인성수준 세부영역별 회복탄력성 간 편상관관계 ..	92

<그림 목차>

<그림 V-1> 인성 수준 요인별 행렬산점도	46
<그림 V-2> 학생 성별 및 주거지역	60
<그림 V-3> 회복탄력성 영역별 행렬산점도	78
<그림 V-4>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행렬산점도	80

I.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제주사회 공동체의 급격한 변동은 가족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혼율이 전국 상위권(2위)에 해당하며, 청소년 자살률(28.7%)이 전국(21.4%)보다 높다. 또한 다문화 가정 및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공동체의 변화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문제 및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족공동체의 중요 가치로 보아왔던 ‘회복탄력성’이 중요 전환점에 직면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자녀에게 회복탄력성을 길러줘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현재 제주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변화 및 가정문제는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제주 가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가족공동체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가족공동체의 정체성 변화 및 지역사회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내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는 능력, 심각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사람과의 친밀감 유대, 애정 어린 양육과 신뢰, 필요할 때 가능한 도움, 자율성 및 감정표현에 대한 격려, 가족 간의 조화 등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 정서적인 행동과 가치관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청소년들 스스로 자아개념과 삶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제주사회의 긍정적 사회문화 풍토를 위해 자녀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의 향상을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 환경인 인성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내 부모의 인성수준과 자녀의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의 인성 덕목들이 자녀의 회복탄력성 및 하위 요소(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제주 지역사회 가족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나아가 제주 지역 가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부모인성에 대한 선행연구

자녀들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도와주며 전반적인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는 학습하고 체득한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내면화 된 인성을 기반으로 자녀와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만, 상황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는 때론 일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으로서 부모의 인성 요소(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과 용기, 정의, 시민성 등)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성이란 타고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특질로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이라고도 한다(진홍섭, 2003).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를 대표하는 변인으로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어 왔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부모의 변인으로 부모의 인성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고 있다.

Belsky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인성 특성임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인성적인 근원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다른 체계가 잘못되더라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채일숙, 2017).

책임감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객관적이고 사색적인 인성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애정적으로 보살피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은수, 1985).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인성 특성이 부모-자녀관계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들의 회복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려 된다. 부모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 부모의 인성 특성과 자녀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중요 연구 개념으로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으로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정은주(2017)는 ‘회복’과 ‘탄력성’이 합쳐진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¹⁾ 실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레질리언스, 극복력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박기령·최중진, 2016).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정은주(2017)도 연구의 대상과 주제에 따라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등 다양하게 정의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회복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을 공통된 개념으로 보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²⁾

회복탄력성 연구는 1970년대에 Garmezy(1973)에 의하여 이루어진 역량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정신분열증의 특성과 기원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 및 발달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회복탄력성의 연구의 전조가 되었다(김주환 외, 2009).

1985년에 이르러 Rutter(1985)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으로 회복탄력성을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Tellegen & Garmezy

1) 정은주(2017)는 한애경·이은주(2010)가 주장하는 ‘회복’개념과 김미옥(2001), 성준모(2007), 송순인(2010), 양옥경(2001), 최정민(2010)이 주장하는 ‘탄력성’개념이 합쳐진 용어로 보고 있다.

2) 정은주(2017)에 따르면 유성경·최봉윤·홍세희(2004), Connor & Davidson(2010), Davis & Luecken(2005) Jew, Green & Kroger(1999), Klohnen(1996), Leve & Fisher & Chamberlain(2009), Lemery-Chalfant(2009) 등이 사용하고 있다.

(1984)은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기 쉽고 적응을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대처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Gjerde & Block(1986)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롭거나 미해결된 상황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불안수준을 낮추고 통합적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90년대 이르러 Werner & Smith(1992)은 청소년에게 있어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매우 활동적이며, 내적 통제를 잘 하고, 책임감을 지니고, 긍정적 자아개념과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Blok(1996)은 개인이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 통제 수준을 조절하여 적응하는 능력이라 하여 ‘자아탄력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Polk(1997)은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2000년대 이르러 회복탄력성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이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어서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Youssef & Luthans, 2007; 이민수, 2017 재인용). Luther, Cicchetti & Becker(2000)도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Masten(2005)은 회복탄력성을 위협요인이나 역경 또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즉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회복탄력성과 연관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개념이 초기 단계여서 ‘Resilience’의 번역이 다양하여 회복력, 복원력, 자아탄력성, 심리적 건강성, 유연성, 극복력, 탄력성, 적응유연성, 회복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규필(2004)은 스트레스와 충격 등의 부정적 외부 환경으로부터 겪는 심리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위험 상황 이전의

원래 위치로 회복하는 능력이라 하여 ‘적응 유연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유안진(2005)는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며,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았다.

홍은숙(2006)은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늘어나 있거나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튀어 오르거나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정신적 저항력’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하나 외(2014)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이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자기 확신과 자기 수용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혼가정의 청소년을 연구한 송옥선(2006)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이혼가정이라는 편견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인관계’, ‘이성관계의 문제’와 같은 위험요인들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서적지지’, ‘긍정적인 자아상’, ‘뚜렷한 경제적 관념’과 같은 보호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력성을 회복해 간다고 밝혔다. 송옥선(2006)의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에 대한 시선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일부가 된다.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며 일의 수행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복과 성공의 기본요소로 보았다(김주환 외, 2009: 105~131).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은 회복탄력성 검사지수 개발을 통해 회복탄력성이 자기조절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이라는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개념임을 밝혔다. 이 중 회복탄력성이 높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긍정성인데,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로 구분된다. 김주환(2011)은 청소년들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탄력

있는 고무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최근 정은주(2017)는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속한 상황 속에서 위험이나, 위기, 긴장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회복탄력성의 개념 초기에는 장애, 가난,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및 정신질환, 재해, 전쟁의 경험 등 주로 중대한 역경에 처하였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회복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정은주, 2017).

세계적으로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시되며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박기령·최중진, 2016).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특성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능동적이거나 활동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회복탄력성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지속해서 진행되어왔다(권기환, 2017; 정은주, 2017:재인용).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제의 연구가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은주, 2017).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모든 청소년이 역경으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현은민, 2013), 아동학대, 부모의 정신병리, 부모의 이혼, 극심한 빈곤, 성폭력 등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기나 역경을 경험한 모두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권유경, 정소희, 2012). 즉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부모가 중대한 변수이기도 하지만 회복탄력성 향상에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학교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 행복감, 업무성과, 조직몰입,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은주, 2017). 따라서 청소년 회복탄력성에 관여하는 다각적인 변수를 찾아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으며 일반 제주도 청소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자료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인성 혹은 정서가 제주지역 청소년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아가 이것이 제주지역 청소년 회복탄력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수를 찾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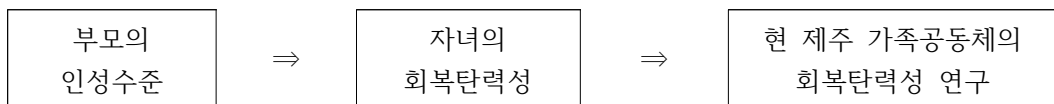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한 방법은 설문조사와 분석이다. 설문조사는 부모들의 인성과 자녀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부모들의 인성과 관련된 설문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개발한 인성설문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한 검사도구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한국형 청소년 회복탄력성 지수(YKRQ-27)를 보완한 허수현(2016)의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모두 53개 문항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 지수를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맞게 27개 문항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 주변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 관계력,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각각 3가지 하위요소를 지녀 모두 9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자기조절력 = 감정조절력 + 충동통제력 + 원인분석력
- 대인 관계력 = 소통능력+ 공감능력 + 자아확장력
- 긍정성 = 자아낙관성 + 생활만족도 + 감사

2.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V.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일반고 23곳, 특수목적고 2곳, 특성화고 5곳) 2학년 학생 및 부모를 모집단으로 확정하였다.

<표 IV-1> 조사대상 고등학교 지역별 분포

구 분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소 계	비율 (%)
일반고	국립	1	-	-	-	1	3.3
	공립	2	4	2	4	12	40.0
	사립	7	-	2	-	9	30.0
특수목적고	공립	1	1	-	-	2	6.7
특성화고	공립	2	2	2	-	6	20.0
합 계		13	7	6	4	30	100.0

- 조사방법 : 구조화 및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집단 및 배포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년 6월 15일 ~ 7월 15일 / 1개월간
- 조사장소 : 조사대상 고등학교 각 학급 교실
- 표집방법 : 조사대상 각 고등학교별 2학년 1개 학급 무작위 선정 후 해당 학급의 전체 학생(조사일 기준 부재한 학생을 제외)을 선정(군집표본추출)
- 분석대상 표본 수 : 부모 445명, 학생 717명
 - 부모의 경우, 총 559명의 조사 표본 중 불성실 응답 114명을 제외한 총 445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2> 분석대상 표본 수(부모)

구 분		조사 표본	제외	유효 표본	소계	비율 (%)
제주시 동지역 (13개소)	남녕고등학교	20	0	20	219	49.2
	대기고등학교	27	5	22		
	신성여자고등학교	19	1	18		
	영주고등학교	28	7	21		
	오현고등학교	16	1	15		
	제주고등학교	14	3	11		
	제주과학고등학교	3	-	3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0	12	18		
	제주여자고등학교	19	2	17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8	5	23		
	제주제일고등학교	7	1	6		
	제주중앙고등학교	30	8	22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3	10	23			
제주시 읍면지역 (7개소)	세화고등학교	10	-	10	86	19.3
	애월고등학교	26	13	13		
	제주의국어고등학교	12	5	7		
	한국뷰티고등학교	25	6	19		
	한림고등학교	21	-	21		
	한림공업고등학교	12	-	12		
함덕고등학교	4	-	4			
서귀포시 동지역 (6개소)	남주고등학교	11	3	8	100	22.5
	삼성여자고등학교	24	2	22		
	서귀포고등학교	20	1	19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17	4	13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5	8	17		
중문고등학교	30	9	21			
서귀포시 읍면지역 (4개소)	대정고등학교	4	1	3	40	9.0
	대정여자고등학교	24	2	22		
	성산고등학교	2	-	2		
	표선고등학교	18	5	13		
합 계		559	114	445	445	100.0

- 학생의 경우, 총 823명의 조사 표본 중 불성실 응답 106명을 제외한 총 717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13개소)에서 342명(47.7%), 제주시 읍면지역(7개소) 162명(22.6%), 서귀포시 동지역(6개소) 142명

(19.8%), 서귀포시 읍면지역(4개소) 71명(9.9%)을 학생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표 IV-3> 분석대상 표본 수(학생)

구 분		조사 표본	제외	유효 표본	소계	비율 (%)
제주시 동지역 (13개소)	남녕고등학교	20	-	20	342	47.7
	대기고등학교	37	3	34		
	신성여자고등학교	32	3	29		
	영주고등학교	32	4	28		
	오현고등학교	36	-	36		
	제주고등학교	25	7	18		
	제주과학고등학교	19	1	18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2	10	22		
	제주여자고등학교	30	1	29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6	9	17		
	제주제일고등학교	37	4	33		
	제주중앙고등학교	30	3	27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5	4	31		
제주시 읍면지역 (7개소)	세화고등학교	25	2	23	162	22.6
	애월고등학교	29	5	24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1	1	20		
	한국부티고등학교	24	4	20		
	한림고등학교	28	3	25		
	한림공업고등학교	27	2	25		
서귀포시 동지역 (6개소)	함덕고등학교	26	1	25	142	19.8
	남주고등학교	29	8	21		
	삼성여자고등학교	29	3	26		
	서귀포고등학교	26	1	25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1	2	19		
서귀포시 읍면지역 (4개소)	서귀포여자고등학교	34	8	26	71	9.9
	중문고등학교	30	5	25		
	대정고등학교	16	10	6		
	대정여자고등학교	24	-	24		
	성산고등학교	17	2	15		
	표선고등학교	26	-	26		
합 계		823	106	717	717	100.0

2. 조사 내용

가. 부모용 : 총 55개 항목

- 인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7개 측정 문항)
 - 인성교육 관심 및 활동 정도
 - 가정 내 인성교육 실시 방법 및 어려운 점
 - 부모 대상 인성교육 참석 의사 정도
 - 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 등
- 인성 수준의 정도(40개 측정 문항)
 - 자기존중,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정의, 시민성 등 8개 영역별 5개 문항
-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자녀수, 연령, 학력,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소득), 제주도 거주기간 등 8개 문항

나. 학생용 : 총 29개 항목

-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정도(27개 측정 항목)
 - 자기조절력(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등 3가지 하위 요소 각 3문항씩) 9개 측정 문항
 -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등 3가지 하위요소 각 3문항씩) 9개 측정 문항
 -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등 3가지 하위요소 각 3문항씩) 9개 문항
-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주거지역) 2개 문항

V. 조사결과 및 해석

1. 제주지역 부모의 인성 정도

가. 조사대상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 현황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V-1>과 같다. 445명의 조사 대상자 중 어머니가 응답해 준 경우는 76.2%(339명)이고, 아버지는 23.8%(106명)로 어머니가 응답해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47.9%(21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명은 38.5%(171명), 1명은 13.7%(6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연령은 50대 미만 67.4%, 50대 이상은 32.6%로 조사되었다.

학력에서는 대학 수료 및 졸업이 전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1%(183명), 대학원 수료 및 졸업 6.5%(2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서는 전문직, 교사, 공무원이 21.3%(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16.6%(74명), 판매/서비스 15.7%(70명), 행정/사무직 11.7%(52명), 기술/노무직 6.7%(30명), 1차 산업 4.9%(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은 제주시 동지역(252명, 56.6%)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서귀포시 동지역 17.5%(78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13.0%(58명), 제주시 읍면지역 12.8%(5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이 35.5%(1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0~600만원 미만 30.8%(137명), 600만원 이상 19.5%(87명), 200만원 미만 14.2%(6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 거주지간은 대부분이 9년 이상(398명, 89.4%)으로 조사되었으며, 9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는 47명(10.6%)으로 나타났다.

<표 V-1> 부모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여 성	339	76.2
	남 성	106	23.8
	합 계	445	100
자녀수	1명	61	13.7
	2명	213	47.9
	3명 이상	171	38.5
	합 계	445	100.0
연 령	50대 미만	300	67.4
	50대 이상	145	32.6
	합 계	445	100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3	41.1
	대학 수료 및 졸업	233	52.4
	대학원 수료 및 졸업	29	6.5
	합 계	445	100.1.0
직 업	1차 산업	22	4.9
	자영업	74	16.6
	판매/서비스	70	15.7
	기술/노무직	30	6.7
	행정/사무직	52	11.7
	전문직, 교사, 공무원	95	21.3
	주부, 무직	102	22.9
	합 계	1,780	100.0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252	56.6
	제주시 읍면지역	57	12.8
	서귀포시 동지역	78	17.5
	서귀포시 읍면지역	58	13.0
	합 계	226	100.0
가구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63	14.2
	200-400만원 미만	158	35.5
	400-600만원 미만	137	30.8
	600만원 이상	87	19.5
	합 계	2,191	192.3.0
제주도 거주기간	9년 미만	47	10.6
	9년 이상	398	89.4
	합 계	284	113.0

나.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 정도

제주지역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제주지역 부모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매우 관심 있다’ 64.5%(287명), ‘조금 관심 있다’ 24.9%(111명), ‘보통이다’ 9.0%(4명), ‘관심 없다’ 1.3%(6명), ‘전혀 관심 없다’ 0.2%(1명) 순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부모들은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관심 없다	1	0.2
관심 없다	6	1.3
보통이다	40	9.0
조금 관심 있다	111	24.9
매우 관심 있다	287	64.5
합 계	445	100.0

2) 바른 행동 모델로서의 정도

응답자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바른 행동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바른 모델이 매우 된다고 생각한다’ 20.4%(91명), ‘바른 모델이 조금 된다고 생각한다’ 46.1%(205명), ‘보통이다’ 28.5%(127명), ‘바른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3.8%(17명), ‘바른 모델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1%(5명) 순으로 나타나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바른 모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바른 행동 모델로서의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바른 모델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5	1.1
바른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7	3.8
보통이다	127	28.5
바른 모델이 조금 된다고 생각한다	205	46.1
바른 모델이 매우 된다고 생각한다	91	20.4
합 계	445	100.0

3) 인성교육 활동 정도

응답자 부모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항목에서는 ‘조금 많이 활동한다’ 38.4%(171명), ‘보통이다’ 37.8%(168명), ‘매우 많이 활동한다’ 14.8%(66명),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 7.9%(35명),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1.1%(5명) 순으로 나타나 각 가정에서 인성교육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V-4> 인성교육 활동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5	1.1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	35	7.9
보통이다	168	37.8
조금 많이 활동한다	171	38.4
매우 많이 활동한다	66	14.8
합 계	445	100.0

4) 인성교육 실시 방법

응답자 부모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이야기 나누기’가 88.5%(3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장학습(체험하기)’ 5.4%(24명),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2.9%(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성교육 실시 방법의 기타 응답으로는 생활속에서 스스로 느끼기(1명), 가족회의(2명), 예절교육(2명), 여가 및 봉사활동(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단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단편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모들의 경우 ‘이야기 나누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인성교육 실시 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이야기 나누기	394	88.5
문학적 접근(동화, 인형극)	5	1.1
현장학습(체험하기)	24	5.4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13	2.9
기타	9	2.0
합 계	445	100.0

5) 인성교육 실시의 어려운 점

응답자 부모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이 없어서’가 53.5%(2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1.8%(97명), ‘사회전반의 학벌주의 풍토

라서' 11.2%(50명), '가족이 비협조적이라서' 7.2%(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애로사항은 시간의 부족과 방법의 모호함, 학벌주의 사회 분위기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 응답으로는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어려움이 없거나 충분하다(12명), 세대/가치관 차이에 따른 의견 충돌(4명), 사회(학교) 전반의 문화 및 분위기(4명), 부모의 무지 및 인내력 부족(3명), 자녀의 비협조(2명), 사회나 학교에서의 일관되지 못한 교육법(1명)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표 V-6> 인성교육 실시의 어려운 점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97	21.8
시간이 없어서	238	53.5
가족이 비협조적이라서	32	7.2
사회전반의 학벌주의 풍토라서	50	11.2
기타	28	6.3
합 계	445	100.0

6) 부모 인성교육 참석 정도

응답자 부모가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에 참석여부에 관해서는 '보통이다' 38.9%(173명), '가끔씩 참석 하겠다' 36.6%(163명), '적극 참석 하겠다' 16.0%(71명), '참석하지 않겠다' 7.6%(34명),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 0.9%(4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인성을 위한 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표 V-7> 부모 대상 인성교육 참석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	4	0.9
참석하지 않겠다	34	7.6
보통이다	173	38.9
가끔씩 참석 하겠다	163	36.6
적극 참석 하겠다	71	16.0
합 계	445	100.0

7) 청소년 인성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

인성교육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에서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44.7%(1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20.4%(91명), ‘전인적 인간 발달과 전인적 건강 증진’ 13.7%(61명),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12.8%(57명), ‘잠재력의 개발’ 7.2%(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올바른 가치관(3명), 원활한 인간관계(2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표 V-8> 청소년 인성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

구 분	빈도(명)	비율(%)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199	44.7
잠재력의 개발	32	7.2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91	20.4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57	12.8
전인적 인간 발달과 전인적 건강 증진	61	13.7
기타	5	1.1
합 계	445	100.0

다. 부모 인성 수준 정도

1) 각 영역별 인성 수준

부모의 인성 중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정의, 시민성 등 8가지 영역별로 응답한 빈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V-9>와 같다.

인성 수준 각 영역별로 긍정의 응답을 살펴보면, 자기존중의 경우 ‘약간 그렇다’에 39.6%, ‘매우 그렇다’에 32.7% 응답하였고, 배려와 소통의 경우 ‘약간 그렇다’에 45.5%, ‘매우 그렇다’에 33.3% 응답하였다.

사회적 책임은 ‘약간 그렇다’에 40.1%, ‘매우 그렇다’에 42.9% 응답하였고, 예의는 ‘약간 그렇다’에 35.5%, ‘매우 그렇다’에 48.3% 응답하였다.

자기조절은 ‘약간 그렇다’에 41.4%, ‘매우 그렇다’에 23.8% 응답하였고, 정직과 용기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에 41.7%, ‘매우 그렇다’에 28.8% 응답하였다.

정의는 ‘약간 그렇다’에 41.6%, ‘매우 그렇다’에 38.2% 응답하였고, 시민성은 ‘약간 그렇다’에 38.8%, ‘매우 그렇다’에 29.0%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예의(83.8%), 사회적 책임(83.0%), 정의(79.8%), 배려와 소통(78.8%), 자기존중(72.3%), 정직용기(70.5%), 시민성(67.8%), 자기조절(65.2%) 순으로 긍정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의 응답은 자기조절(6.2%), 정직용기(5.1%), 시민성(4.9%), 자기존중(2.7%), 배려와 소통(2.5%), 정의(2.3%), 예의(2.3%), 사회적 책임(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 영역별 인성 수준 빈도

구 분 (n=2,225)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혀 아니다	10	11	3	11
	0.4	0.5	0.1	0.5
약간 아니다	25	45	31	28
	2.3	2.0	1.4	1.3
보통이다	555	415	334	323
	24.9	18.7	15.5	14.5
약간 그렇다	881	1,013	893	789
	39.6	45.5	40.1	35.5
매우 그렇다	727	741	954	1,074
	32.7	33.3	42.9	48.3
구 분 (n=2,225)	자기조절	정직용기	정의	시민성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혀 아니다	17	16	8	19
	0.8	0.7	0.4	0.9
약간 아니다	120	97	42	88
	5.4	4.4	1.9	4.0
보통이다	638	543	401	609
	28.7	24.4	18.0	27.4
약간 그렇다	921	928	925	864
	41.4	41.7	41.6	38.8
매우 그렇다	529	641	849	645
	23.8	28.8	38.2	29.0

제주 지역 부모의 인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평균을 산출하였는데, 예의 4.30, 사회적 책임 4.24, 정의 4.15, 배려와 소통 4.09, 자기존중 4.02, 정직과 용기 3.94, 시민성 3.91, 자기조절 3.82

순으로 나타났다(<표 V-10> 참조). 즉 제주지역 부모의 인성 중 예의가 가장 높은 수준(4.30)이었고, 자기조절이 가장 낮은(3.8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자기존중에서는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17로 가장 높았고,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3.91로 가장 낮았다.

배려와 소통에서는 ‘주변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의 평균(4.25)이 가장 높고, ‘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고민이나 갈등을 잘 해결해 준다는 문항의 평균(3.85)이 가장 낮았다.

사회적 책임에서는 ‘나는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는 문항과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35로 가장 높았고, ‘나는 회사 회의나 가족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지킨다’는 문항의 평균이 4.12로 가장 낮았다.

예의에서는 ‘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이 4.41로 가장 높았고,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노력한(했)다’는 문항의 평균이 4.19로 가장 낮았다.

자기조절에서는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문항의 평균이 4.03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문항의 평균이 3.59로 가장 낮았다.

정직과 용기에서는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08로 가장 높았고, ‘나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3.73으로 가장 낮았다.

정의에서는 ‘나는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으로 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문항의 평균이 4.32로 가장 높았고, ‘나는 주어진 업무나 분위기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을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문항의 평균이 4.08로 가장 낮았다.

시민성에서는 ‘나는 다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16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집단(회사/지역사회/국가 등)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이 3.70으로 가장 낮았다.

<표 V-10> 부모의 인성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자기 존중	4.02	.634	80.4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93	.834	78.6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	3.91	.931	78.2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17	.787	83.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4.04	.840	80.8
나는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4	.790	80.8
배려와 소통	4.09	.593	81.8
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고민이나 갈등을 잘 해결해준다	3.85	.829	77.0
나는 지인이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16	.763	83.2
주변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4.25	.734	85.0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한다	3.97	.840	79.4
나는 지인이 상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 준다	4.23	.744	84.6
사회적 책임	4.24	.597	84.8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4.23	.759	84.6
나는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4.35	.752	87.3
나는 단체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한다	4.16	.795	83.2
나는 회사 회의나 가족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지킨다	4.12	.794	82.4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4.35	.722	87.0
예의	4.30	.597	86.0
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4.41	.737	88.2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한다	4.34	.841	86.8
나는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4.20	.842	84.0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4.19	.805	83.8
나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4.36	.729	87.2

자기 조절	3.82	.680	76.4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한다	3.81	.827	76.2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3.59	.910	71.8
나는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3.80	.931	76.0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3.87	.872	77.4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4.03	.809	80.6
정직과 용기	3.94	.683	78.8
나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3.73	.921	74.6
나는 실수를 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3.96	.844	79.2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4.08	.843	81.6
나는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한다	4.06	.830	81.2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주변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다	3.84	.893	76.8
정의	4.15	.616	83.0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4.17	.841	83.4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4.11	.846	82.2
나는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으로 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32	.780	86.4
나는 형편과 여건(학업능력/가정여건/외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4.09	.773	81.8
나는 주어진 업무나 분위기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을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08	.755	81.6
시민성	3.91	.638	78.2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자랑스럽다	4.10	.830	82.0
나는 다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16	.817	83.2
나는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지구촌 난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싶다	3.88	.915	77.6
나는 세계의 공통문제(환경, 인권, 빈곤, 세계평화 등)에 관심이 있다.	3.72	.898	74.4
나는 집단(회사/지역사회/국가 등)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3.70	.883	74.0

주1) 인성 수준 정도(평균)은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주2) 백분위는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1) 자기존중

부모의 자기존중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1>과 같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자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76.3%) 집단이 40대 이하(70.3%) 집단보다 높았고,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졸업 이상(76.3%) 집단이 고등졸업 이하(70.3%) 집단보다 자기존중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군(1차 산업, 자영업) 78.0%고 가장 높았고, 사무직군(행정/사무직, 전문직, 교사, 공무원)은 77.4%, 기타(주부, 무직)는 66.5%, 서비스직군(판매/서비스, 기술/노무직)은 6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74.4%)과 서귀포시 읍면지역(72.4%)이 서귀포시 동지역(69.5%), 제주시 읍면지역(66.3%) 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존중에서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자기존중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400~600만원 미만(78.4%)과 600만원 이상(78.4%) 집단이 200~400만원 미만(67.5%)과 200만원 미만(62.5%) 집단 보다 자기존중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9년 미만(76.6%) 집단이 9년 이상(71.7%) 집단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 자기존중에 대한 부정적 답변의 경우도 9년 이상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1> 부모의 자기존중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성별	여성 (n=1,695)	7 0.4	35 2.1	423 25.0	663 39.1	567 33.5	4.197	.380
	남성 (n=530)	3 0.6	17 3.2	132 24.9	218 41.1	160 30.2		
자녀수	1명 (n=305)	3 1.0	10 3.3	79 25.9	119 39.0	94 30.8	9.296	.318
	2명 (n=1,065)	6 0.6	24 2.3	260 24.4	439 41.2	336 31.5		
	3명 이상 (n=855)	1 0.1	18 2.1	216 25.3	323 37.8	297 34.7		
연령	40대 이하 (n=1,500)	9 0.6	34 2.3	402 26.8	591 39.4	464 30.9	13.092	.011*
	50대 이상 (n=725)	1 0.1	18 2.5	153 21.1	290 40.0	263 36.3		
학력	고등졸업 이하 (n=915)	7 0.8	23 2.5	255 27.9	351 38.4	279 30.5	11.846	.019*
	대학졸업 이상 (n=1,310)	3 0.2	29 2.2	300 22.9	530 40.5	448 34.2		
직업	자영업군 (n=480)	0 0.0	10 2.1	96 20.0	210 43.8	164 34.2	63.234	.000***
	서비스직군 (n=500)	8 1.6	19 3.8	147 29.4	192 38.4	134 26.8		
	사무직군 (n=735)	0 0.0	10 1.4	156 21.2	292 39.7	277 37.7		
	기타직군 (n=510)	2 0.4	13 2.5	156 30.6	187 36.7	152 29.8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5	22	295	526	412	21.440	.044*
		0.4	1.7	23.4	41.7	32.7		
	제주시 읍면지역 (n=285)	2	6	88	105	84		
		0.7	2.1	30.9	36.8	29.5		
	서귀포시 동지역 (n=390)	1	12	106	133	138		
		0.3	3.1	27.2	34.1	35.4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2	12	66	117	93		
		0.7	4.1	22.8	40.3	32.1		
가구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n=315)	3	15	100	99	98	62.823	.000***
		1.0	4.8	31.7	31.4	31.1		
	200-400만원 미만 (n=790)	5	20	232	315	218		
		0.6	2.5	29.4	39.9	27.6		
	400-600만원 미만 (n=685)	1	9	138	301	236		
		0.1	1.3	20.1	43.9	34.5		
	600만원 이상 (n=435)	1	8	85	166	175		
		0.2	1.8	19.5	38.2	40.2		
거주기간	9년 미만 (n=235)	4	7	44	98	82	14.403	.006**
		1.7	3.0	18.7	41.7	34.9		
	9년 이상 (n=1,990)	6	45	511	783	645		
		0.3	2.3	25.7	39.3	32.4		

* p<.05, ** p<.01, *** p<.001

(2) 배려와 소통

부모의 배려와 소통 수준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2>와 같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 중 자녀수, 연령, 주거지역, 제주도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80.1%)가 아버지(74.7%)보다 배려와 소통에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졸업 이상(81.5%) 집단이 고등졸업 이하(75.1%) 집단 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 배려와 소통이 가장 높은 직업은 사무직군(82.8%)이고, 자영업군(78.7%), 기타(78.7%), 서비스직군(73.2%)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83.1%) 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400~600만원 미만(82.2%) 집단, 200~400만원 미만(77.5%) 집단, 200만원 미만(67.6%)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배려와 소통에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표 V-12> 부모의 배려와 소통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 ²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배려 소통	성 별	여성 (n=1,695)	6	31	300	754	604	20.930	.000***		
			0.4	1.8	17.7	44.5	35.6				
	남성 (n=530)	5	14	115	259	137					
		0.9	2.6	21.7	48.9	25.8					
	자 녀 수	1명 (n=305)	4	7	44	153	97			11.609	.170
			1.3	2.3	14.4	50.2	31.8				
2명 (n=1,065)		5	23	203	483	351					
3명 이상 (n=855)	0.5	2.2	19.1	45.4	33.0						
	2	15	168	377	293						
0.2	1.8	19.6	44.1	34.3							
	배려 소통	연 령	40대 이하 (n=1,500)	9	26	301	673	8.775	.067		
0.6				1.7	20.1	44.9	32.7				
50대 이상 (n=725)	2	19	114	340	250						
	0.3	2.6	15.7	46.9	34.5						

학 력	고등졸업 이하 (n=915)	5	23	200	417	270	17.227	.002**
		0.5	2.5	21.9	45.6	29.5		
	대학졸업 이상 (n=1,310)	6	22	215	596	471		
		0.5	1.7	16.4	45.5	36.0		
직 업	자영업군 (n=480)	3	15	84	208	170	34.027	.001**
		0.6	3.1	17.5	43.3	35.4		
	서비스직군 (n=500)	3	10	121	231	135		
		0.6	2.0	24.2	46.2	27.0		
	사무직군 (n=735)	0	9	117	336	273		
		0.0	1.2	15.9	45.7	37.1		
	기타 (n=510)	5	11	93	238	163		
		1.0	2.2	18.2	46.7	32.0		
주 거 지 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6	23	217	606	408	19.395	.079
		0.5	1.8	17.2	42.1	32.4		
	제주시 읍면지역 (n=285)	0	4	61	113	107		
		0.0	1.4	21.4	39.6	37.5		
	서귀포시 동지역 (n=390)	1	9	77	173	130		
		0.3	2.3	19.7	44.4	33.3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4	9	60	121	96		
		1.4	3.1	20.7	41.7	33.1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미만 (n=315)	3	10	89	121	92	50.489	.000***
		1.0	3.2	28.3	38.4	29.2		
	200-400만원 미만 (n=790)	3	22	153	369	243		
		0.4	2.8	19.4	46.7	30.8		
	400-600만원 미만 (n=685)	4	9	109	336	227		
		0.6	1.3	15.9	49.1	33.1		
	600만원 이상 (n=435)	1	4	64	187	179		
		0.2	0.9	14.7	43.0	41.1		
거 주 기 간	9년 미만 (n=235)	0	3	34	105	93	7.632	.106
		0.0	1.3	14.5	44.7	39.6		
	9년 이상 (n=1,990)	11	42	381	908	648		
		0.6	2.1	19.1	45.6	32.6		

* p<.05, ** p<.01, *** p<.001

(3) 사회적 책임

부모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응답자 개인적 특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3>과 같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제주도 거주기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어머니(83.7%) 아버지(81.0%)보다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86.6%)이 40대 이하(81.2%) 보다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졸업 이상(84.8%) 집단이 고등졸업 이하(80.5%) 집단 보다 사회적 책임에 더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고, 직업별로는 사무직군(86.6%), 자영업군(84.2%), 기타(80.6%), 서비스직군(79.0%)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별로 사회적 책임은 제주시 동지역(85.6%), 서귀포시 동지역(83.1%), 서귀포시 읍면지역(77.9%), 제주시 읍면지역(76.8%) 순으로 조사 되었다.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400~600만원 미만(87.6%) 집단이 사회적 책임에 가장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600만원 이상(87.1%), 200~400만원 미만(81.0%), 200만원 미만(72.4%) 집단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9년 미만 집단(86.0%)이 9년 이상 집단(82.7%) 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표 V-13> 부모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인구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 회 적	성 별	여성 (n=1,695)	1	19	257	659	759	16.034	.003**
			0.1	1.1	15.2	38.9	44.8		
	남성 (n=530)	2	12	87	234	195			
		0.4	2.3	16.4	44.2	36.8			

책 입	자 녀 수	1명 (n=305)	1 0.3	7 2.3	41 13.4	123 40.3	133 43.6	9.768	.282
		2명 (n=1,065)	0 0.0	14 1.3	165 15.5	410 38.5	476 44.7		
		3명 이상 (n=855)	2 0.2	10 1.2	138 16.1	360 42.1	345 40.4		
연 령	40대 이하 (n=1,500)	3 0.2	20 1.3	258 17.2	590 39.3	629 41.9	12.268	.015*	
	50대 이상 (n=725)	0 0.0	11 1.5	86 11.9	303 41.8	325 44.8			
학 력	고등졸업 이하 (n=915)	1 0.1	13 1.4	165 18.0	394 43.1	342 37.4	21.009	.000***	
	대학졸업 이상 (n=1,310)	2 0.2	18 1.4	179 13.7	499 38.1	612 46.7			
직 업	자영업군 (n=480)	2 0.4	6 1.3	68 14.2	201 41.9	203 42.3	60.833	.000***	
	서비스직군 (n=500)	0 0.0	12 2.4	93 18.6	231 46.2	164 32.8			
	사무직군 (n=735)	0 0.0	9 1.2	89 12.1	253 34.4	384 52.2			
	기타 (n=510)	1 0.2	4 0.8	94 18.4	208 40.8	203 39.8			
주 거 지 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1 0.1	12 1.0	169 13.4	535 42.5	543 43.1	32.413	.001**	
	제주시 읍면지역 (n=285)	0 0.0	6 2.1	60 21.1	99 34.7	120 42.1			
	서귀포시 동지역 (n=390)	2 0.5	8 2.1	56 14.4	141 36.2	183 46.9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0 0.0	5 1.7	59 20.0	118 40.7	108 37.2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미만 (n=315)	0 0.0	9 2.9	78 24.8	120 38.1	108 34.3	62.582	.000***	
	200-400만원 미만 (n=790)	2 0.3	16 2.0	132 16.7	332 42.0	308 39.0			
	400-600만원 미만 (n=685)	1 0.1	5 0.7	79 11.5	284 41.5	316 46.1			
	600만원 이상 (n=435)	0 0.0	1 0.2	55 12.6	157 36.1	222 51.0			
거 주 기 간	9년 미만 (n=235)	0 0.0	9 3.8	24 10.2	89 37.9	113 48.1	18.228	.001**	
	9년 이상 (n=1,990)	3 0.2	22 1.1	320 16.1	804 40.4	841 42.3			

* p<.05, ** p<.01, *** p<.001

(4) 예의

부모의 예의 수준에 대한 응답자 개인적 특성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4>와 같다. 연령, 주거지역, 제주도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 자녀수, 학력,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버지(84.2%)가 어머니(83.6%) 보다, 자녀수가 2명(84.4%)일 때 긍정적 의견이 가장 많았고, 3명 이상(83.5%), 1명(81.9%) 순으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졸업 이상(83.1%) 집단이 고등졸업 이하(80.3%) 집단보다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직업별로는 자영업군(88.6%)에서 가장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은 사무직군(83.1%), 기타(81.4%), 서비스직군(79.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400~600만원 미만(86.0%)과 600만원 이상(85.8%) 집단이 200~400만원 미만(82.7%) 집단과 200만원 미만(78.7%) 집단 보다 예의에 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표 V-14> 부모의 예의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예의	성별	여성 (n=1,695)	7 0.4	22 1.3	249 14.7	565 33.3	852 50.3	16.143	.003**
		남성 (n=530)	4 0.8	6 1.1	74 14.0	224 42.3	222 41.9		
	자녀수	1명 (n=305)	5 1.6	10 3.3	40 13.1	94 30.8	156 51.1	26.409	.001**
			2명 (n=1,065)	4 0.4	7 0.7	155 14.6	380 35.7		
		3명 이상 (n=855)	2 0.2	11 1.3	128 15.0	315 36.8	399 46.7		

예 의	연령	40대 이하 (n=1,500)	9	22	223	541	705	5.027	.285
			0.6	1.5	14.9	36.1	47.0		
		50대 이상 (n=725)	2	6	100	248	369	18.153	.001**
			0.3	0.8	13.8	34.2	50.9		
	학력	고등졸업 이하 (n=915)	5	15	160	334	401	62.716	.000***
			0.5	1.6	17.5	36.5	43.8		
		대학졸업 이상 (n=1,310)	6	13	163	455	673	18.100	.113
			0.5	1.0	12.4	34.7	51.4		
	직업	자영업군 (n=480)	2	11	68	170	229	25.386	.013*
			0.4	2.3	14.2	35.4	47.7		
		서비스직군 (n=500)	3	4	95	209	189		
			0.6	0.8	19.0	41.8	37.8		
	사무직군 (n=735)	2	5	77	225	426	7.060	.133	
		0.3	0.7	10.5	30.6	58.0			
기타 (n=510)	4	8	83	185	230	18.100	.113		
	0.8	1.6	16.3	36.3	45.1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6	16	160	454	624	25.386	.013*	
		0.5	1.3	12.7	36.0	49.5			
	제주시 읍면지역 (n=285)	3	3	56	91	132			
		1.1	1.1	19.6	31.9	46.3			
서귀포시 동지역 (n=390)	0	3	60	137	190	7.060	.133		
	0.0	0.8	15.4	35.1	48.7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2	6	47	107	128	18.100	.113		
	0.7	2.1	16.2	36.9	44.1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n=315)	4	9	54	98	150	25.386	.013*	
		1.3	2.9	17.1	31.1	47.6			
	200-400만원 미만 (n=790)	4	8	125	292	361			
		0.5	1.0	15.8	37.0	45.7			
400-600만원 미만 (n=685)	2	6	88	259	330	7.060	.133		
	0.3	0.9	12.8	37.8	48.2				
600만원 이상 (n=435)	1	5	56	140	233	18.100	.113		
	0.2	1.1	12.9	32.2	53.6				
거주기간	9년 미만 (n=235)	2	6	25	86	116	7.060	.133	
		0.9	2.6	10.6	36.6	49.4			
	9년 이상 (n=1,990)	9	22	298	703	958	18.100	.113	
		0.5	1.1	15.0	35.3	48.1			

* p<.05, ** p<.01, *** p<.001

(5) 자기조절

부모의 자기조절 수준과 응답자 개인적 특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V-15>와 같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 자녀수, 연령, 직업, 주거지역, 가구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65.8%)가 아버지(63.2%) 보다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자녀수의 경우는 3명 이상(65.8%), 2명(65.4%), 1명(62.7%) 순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67.7%)인 집단이 40대 이하(64.0%) 집단 보다 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력의 경우는 대학졸업 이상(67.9%) 집단이 고등졸업 이하(61.3%) 집단 보다 자기조절에서 더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군(78.3%), 사무직군(70.2%)이 기타(61.3%)와 서비스직군(58.6%) 보다 자기조절 영역에서 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주거지역에 따른 자기조절 수준은 제주시 동지역(68.0), 제주시 읍면지역(64.3%), 서귀포시 동지역(61.5%), 서귀포시 읍면지역(58.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제주시 지역이 서귀포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조절영역에서 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 600만원 이상(71.2%), 400~600만원 미만(65.9%), 200~400만원 미만(63.0%), 200만원 미만(60.7%) 집단 순으로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표 V-15> 부모의 자기조절 수준과 인구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자기조절	성별	여성 (n=1,695)	12 0.7	76 4.5	492 29.0	678 40.0	437 25.8	26.900	.000***
		남성 (n=530)	5 0.9	44 8.3	146 27.5	243 45.8	92 17.4		
자기조절	자녀수	1명 (n=305)	8 2.6	17 5.6	89 29.2	131 43.0	60 19.7	21.513	.006**
		2명 (n=1,065)	5 0.5	65 6.1	299 28.1	434 40.8	262 24.6		
		3명 이상 (n=855)	4 0.5	38 4.4	250 29.2	356 41.6	207 24.2		
연령	40대 이하 (n=1,500)	14 0.9	68 4.5	459 30.6	592 39.5	367 24.5	19.046	.001**	
	50대 이상 (n=725)	3 0.4	52 7.2	179 24.7	329 45.4	162 22.3			
학력	고등졸업 이하 (n=915)	7 0.8	50 5.5	297 32.5	376 41.1	185 20.2	16.081	.003**	
	대학졸업 이상 (n=1,310)	10 0.8	70 5.3	341 26.0	545 41.6	344 26.3			
직업	자영업군 (n=480)	4 0.8	28 5.8	120 25.0	204 42.5	124 25.8	32.256	.001**	
	서비스직군 (n=500)	5 1.0	32 6.4	170 34.0	204 40.8	89 17.8			
	사무직군 (n=735)	3 0.4	27 3.7	189 25.7	319 43.4	197 26.8			
	기타 (n=510)	5 1.0	33 6.5	159 31.2	194 38.0	119 23.3			
자기조절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9 0.7	55 4.4	339 26.9	547 43.4	310 24.6	24.753	.016*
		제주시 읍면지역 (n=285)	2 0.7	12 4.2	88 30.9	121 42.5	62 21.8		
		서귀포시 동지역 (n=390)	5 1.3	34 8.7	111 28.5	147 37.7	93 23.8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1 0.3	19 6.6	100 34.5	106 36.6	64 22.1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n=315)	1 0.3	25 7.9	98 31.1	112 35.6	79 25.1	25.187	.014*	
	200-400만원 미만 (n=790)	10 1.3	46 5.8	236 29.9	327 41.4	171 21.6			
	400-600만원 미만 (n=685)	3 0.4	32 4.7	199 29.1	297 43.4	154 22.5			
	600만원 이상 (n=435)	3 0.7	17 3.9	105 24.1	185 42.5	125 28.7			
거주기간	9년 미만 (n=235)	0 0.0	11 4.7	65 27.7	102 43.4	57 24.3	2.631	.621	
	9년 이상 (n=1,990)	17 0.9	109 5.5	573 28.8	819 41.2	472 23.7			

* p<.05, ** p<.01, *** p<.001

(6) 정직과 용기

부모의 정직과 용기 수준과 응답자 개인적 특성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6>과 같다. 성별, 자녀수, 연령,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가구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72.5%) 집단이 고등졸업 이하(67.8%) 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직업별로는 사무직군(73.7%)과 자영업군(73.3%)이 서비스직군(67.2%)과 기타(66.7%)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제주도 동지역(72.8%)이 가장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귀포시 읍면지역(70.4%), 서귀포시 동지역(67.4%), 제주도 읍면지역(64.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74.0%) 집단이 가장 긍정적 의견을 보였고, 400~600만원 미만(72.1%), 200~400만원 미만(70.1%), 200만원 미만(65.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16> 부모의 정직과 용기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정 직 용 기	성 별	여성 (n=1,695)	10	73	410	706	496	2.345	.673		
			0.6	4.3	24.2	41.7	29.3				
	남성 (n=530)	6	24	133	222	145					
		1.1	4.5	25.1	41.9	27.4					
	자 녀 수	1명 (n=305)	5	17	69	130	84			7.631	.470
			1.6	5.6	22.6	42.6	27.5				
2명 (n=1,065)		7	47	268	431	312					
		0.7	4.4	25.2	40.5	29.3					
3명 이상 (n=855)		4	33	206	367	245					
		0.5	3.9	24.1	42.9	28.7					

정 직 용 기	연령	40대 이하 (n=1,500)	13 0.9	63 4.2	390 26.0	605 40.3	429 28.6	8.620	.071
		50대 이상 (n=725)	3 0.4	34 4.7	153 21.1	323 44.6	212 29.2		
	학력	고등졸업 이하 (n=915)	6 0.7	41 4.5	248 27.1	386 42.2	234 25.6	10.511	.033*
		대학졸업 이상 (n=1,310)	10 0.8	56 4.3	295 22.5	542 41.4	407 31.1		
	직업	자영업군 (n=480)	4 0.8	21 4.4	103 21.5	203 42.3	149 31.0	26.323	.010*
		서비스직군 (n=500)	5 1.0	32 6.4	127 25.4	209 41.8	127 25.4		
		사무직군 (n=735)	5 0.7	25 3.4	164 22.3	301 41.0	240 32.7		
		기타 (n=510)	2 0.4	19 3.7	149 29.2	215 42.2	125 24.5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12 1.0	55 4.4	276 21.9	544 43.2	373 29.6	25.230	.014*
		제주시 읍면지역 (n=285)	2 0.7	17 6.0	81 27.4	109 38.2	76 26.7		
		서귀포시 동지역 (n=390)	1 0.3	12 3.1	114 29.2	140 35.9	123 31.5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1 0.3	13 4.5	72 24.8	135 46.6	69 23.8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미만 (n=315)	0 0.0	15 4.8	101 32.1	110 34.9	89 28.3	29.623	.003**
		200-400만원미만 (n=790)	6 0.8	41 5.2	189 23.9	334 42.3	220 27.8		
		400-600만원 미만 (n=685)	9 1.3	24 3.5	158 23.1	309 45.1	185 27.0		
		600만원이상 (n=435)	1 0.2	17 3.9	95 21.8	175 40.2	147 33.8		
거 주 기 간	9년 미만 (n=235)	2 0.9	11 4.7	51 21.7	97 41.3	74 31.5	1.579	.813	
	9년 이상 (n=1,990)	14 0.7	86 4.3	492 24.7	831 41.8	567 28.5			

* p<.05, ** p<.01, *** p<.001

(7) 정의 영역

부모의 정의 수준과 부모 개인적 특성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7>과 같다. 성별, 자녀수,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군(85.8%)과 사무직군(84.9%)이 서비스직군(74.2%)과 기타 직업군(72.0%)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81.7%)이 가장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제주시 동지역(80.8%), 서귀포시 동지역(87.7%), 제주시 읍면지역(74.0%)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82.9%) 집단이 가장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고, 600만원 이상(82.1%), 200~400만원 미만(78.1%), 200만원 미만(73.6%) 집단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17> 부모의 정의 수준과 인구 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정 의	성 별	여성 (n=1,695)	8 0.5	31 1.8	307 18.1	692 40.8	657 38.8	4.298	.367
		남성 (n=530)	0 -	11 2.1	94 17.7	233 44.0	192 36.2		
	자 녀 수	1명 (n=305)	3 1.0	10 3.3	53 17.4	132 43.3	107 35.1	11.109	.196
		2명 (n=1,065)	3 0.3	21 2.0	194 18.2	427 40.1	420 39.4		
		3명 이상 (n=855)	2 0.2	11 1.3	154 18.0	366 42.8	322 37.7		
	정 의	연 령	40대 이하 (n=1,500)	7 0.5	29 1.9	285 19.0	631 42.1	548 36.5	7.412
50대 이상 (n=725)			1 0.1	13 1.8	116 16.0	294 40.6	301 41.5		

학력	고등졸업 이하 (n=915)	5	16	183	378	333	6.334	.176
		0.5	1.7	20.0	41.3	36.4		
	대학졸업 이상 (n=1,310)	3	26	218	547	516		
		0.2	2.0	16.6	41.8	39.4		
직업	자영업군 (n=480)	1	9	58	207	205	67.191	.000***
		0.2	1.9	12.1	43.1	42.7		
	서비스직군 (n=500)	1	12	116	212	159		
		0.2	2.4	23.2	42.4	31.8		
	사무직군 (n=735)	2	11	98	299	325		
		0.3	1.5	13.3	40.7	44.2		
	기타 (n=510)	4	10	129	207	160		
		0.8	2.0	25.3	40.6	31.4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5	25	211	536	483	35.504	.000***
		0.4	2.0	16.7	42.5	38.3		
	제주시 읍면지역 (n=285)	0	4	70	104	107		
		0.0	1.4	24.6	36.5	37.5		
	서귀포시 동지역 (n=390)	0	6	77	138	169		
		0.0	1.5	19.7	35.4	43.3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3	7	43	147	90		
		1.0	2.4	14.8	50.7	31.0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n=315)	1	10	72	109	123	26.923	.008**
		0.3	3.2	22.9	34.6	39.0		
	200-400만원 미만 (n=790)	3	19	151	332	285		
		0.4	2.4	19.1	42.0	36.1		
	400-600만원 미만 (n=685)	2	9	106	315	253		
		0.3	1.3	15.5	46.0	36.9		
	600만원 이상 (n=435)	2	4	72	169	188		
		0.5	0.9	16.6	38.9	43.2		
거주기간	9년 미만 (n=235)	1	7	33	98	96	4.499	.343
		0.4	3.0	14.0	41.7	40.9		
	9년 이상 (n=1,990)	7	35	368	827	753		
		0.4	1.8	18.5	41.6	37.8		

* p<.05, ** p<.01, *** p<.001

(8) 시민성 영역

부모의 시민성 수준과 개인적 특성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8>과 같다. 성별,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자녀수와 연령, 직업과 주거지역,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수는 3명 이상(71.9%) 집단에서 가장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1명(69.9%), 2명(6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67.8%) 집단이 40대 이하(66.6%) 집단 더 긍정적 의견을 보였고, 학력별로는 대학졸업 이상(71.7%) 집단이 고등졸업 이하(62.2%) 집단 보다 시민성에 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군(75.3%)과 자영업군(68.8%)이 기타(63.5%)와 서비스직군(60.4%) 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제주시 동지역(70.8%), 제주시 읍면지역(65.7), 서귀포시 읍면지역(64.9), 서귀포시 동지역(62.0)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가구 월평균소득에서는 600만원 이상(74.9%) 집단에서 가장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400~600만원 미만(68.6%), 200~400만원 미만(66.2%), 200만원 미만(60.4%) 순으로 나타나 가구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시민성에 더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V-18> 부모의 시민성 수준과 인구통계적 특성 간의 교차분석

구 분 (n=2,225)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성 별	여성 (n=1,695)	12 0.7	59 3.5	436 27.3	673 39.7	488 28.8	7.324	.120	
	남성 (n=530)	7 1.3	29 5.5	146 27.5	191 36.0	157 29.6			
사 민 성	자 녀 수	1명 (n=305)	7 2.3	18 5.9	67 22.0	117 38.4	96 31.5	43.913	.000***
	2명 (n=1,065)	10 0.9	57 5.4	316 29.7	402 37.7	280 26.3			
	3명 이상 (n=855)	2 0.2	13 1.5	226 26.4	345 40.4	269 31.5			

시민성	연령	40대 이하 (n=1,500)	15 1.0	65 4.3	421 28.1	598 39.9	401 26.7	12.979	.011*
		50대 이상 (n=725)	4 0.6	23 3.2	188 27.4	266 38.8	244 29.0		
	학력	고등졸업 이하 (n=915)	10 1.1	51 5.6	285 31.1	337 36.8	232 25.4	28.115	.000***
		대학졸업 이상 (n=1,310)	9 0.7	37 2.8	324 24.7	527 40.2	413 31.5		
	직업	자영업군 (n=480)	3 0.6	14 2.9	133 27.7	180 37.5	150 31.3	65.908	.000***
		서비스직군 (n=500)	8 1.6	34 6.8	156 31.2	183 36.6	119 23.8		
		사무직군 (n=735)	2 0.3	10 1.4	170 23.1	296 40.3	257 35.0		
		기타 (n=510)	6 1.2	30 5.9	150 29.4	205 40.2	119 23.3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n=1,260)	14 1.1	59 4.7	295 23.4	510 40.5	382 30.3	33.996	.001**
		제주시 읍면지역 (n=285)	1 0.4	5 1.8	92 32.3	115 40.4	72 25.3		
		서귀포시 동지역 (n=390)	2 0.5	16 4.1	130 33.3	126 32.3	116 29.7		
		서귀포시 읍면지역 (n=290)	2 0.7	8 2.8	92 31.7	113 39.0	75 25.9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n=315)	2 0.6	20 6.3	103 32.7	106 33.7	84 26.7	26.955	.008**
		200-400만원 미만 (n=790)	7 0.9	37 4.7	223 28.2	304 38.5	219 27.7		
		400-600만원 미만 (n=685)	7 1.0	23 3.4	185 27.0	276 40.3	194 28.3		
		600만원 이상 (n=435)	3 0.7	8 1.8	98 22.5	178 40.9	148 34.0		
거주기간	9년 미만 (n=235)	0 0.0	9 3.8	49 20.9	107 45.5	70 29.8	9.430	.051	
	9년 이상 (n=1,990)	19 1.0	79 4.0	560 28.1	757 38.0	575 28.9			

* p<.05, ** p<.01, *** p<.001

(9) 부모 인성 수준과 응답자 개인적 특성 변수 간의 차이에 대한 소결

부모의 인성 변수와 부모의 개인적 특성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라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부모 인성 변수 중 자기존중은 응답자 특성 중 연령과 학력, 직업, 주

거지역, 월 평균 소득, 제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과 자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연령이 50대 이상인 자영업군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제주에 9년 미만 거주 집단과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구 월평균소득이 400-6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인성 변수 중 배려와 소통은 자녀수, 연령, 주거지역, 제주도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 학력,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이면서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배려와 소통 영역에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인성 변수 중 사회적 책임은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성별,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제주도 거주기간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50대 이상이고 대학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에서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월평균 소득이 400-600만원 미만 집단이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또한 제주에 거주한 기간이 9년 미만인 집단이 9년 이상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모 인성 변수 중 예의는 연령, 주거지역, 제주도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 자녀수, 학력,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2명인 아버지 집단에서, 대학졸업 이상이면서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집단이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400-6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 인성 변수 중 자기조절은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 자녀 수, 연령,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50대 이상의 어머니 집단이 자기조절에 대해 긍

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졸업 이상의 사무직군이고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부모 인성 변수 중 정직과 용기는 성별, 자녀수, 연령,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학력과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졸업 이상인 사무직군에 종사하고,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정직과 용기에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인성 변수 중 정의는 성별, 자녀수,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업, 주거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영업군이고 월평균 소득이 400-600만원 미만 집단에서 정의에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 변수 중 시민성은 성별,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녀수와 연령, 직업과 주거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50대 이상이면서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에서 시민성에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무직군이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2) 인성 수준 요인별 상관분석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과 용기, 정의, 시민성 등 인성 수준 8가지 영역별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V-19>와 같다.

부모의 인성 수준 8가지 영역별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같은 방향(positive, +)으로 변화

하는지 또는 서로 다른 방향(negative, -)으로 변화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관계의 정도(magnitude)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의 관계로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9> 인성 수준 요인별 상관분석

구 분		자기 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 조절	정직과 용기	정의	시민성
자기 존중	Person 상관계수	1	.752***	.752***	.680***	.643***	.713***	.694***	.600***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배려와 소통	Person 상관계수	.752***	1	.818***	.775***	.683***	.717***	.765***	.681***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적 책임	Person 상관계수	.752***	.818***	1	.780***	.630***	.720***	.767***	.597***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예의	Person 상관계수	.680***	.775***	.780***	1	.632***	.658***	.732***	.658***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기 조절	Person 상관계수	.643***	.683***	.630***	.632***	1	.730***	.628***	.581***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직과 용기	Person 상관계수	.713***	.717***	.720***	.658***	.730***	1	.763***	.635***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의	Person 상관계수	.694***	.765***	.767***	.732***	.628***	.763***	1	.706***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시민성	Person 상관계수	.600***	.681***	.597***	.658***	.581***	.635***	.706***	1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1) 보편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0.50~0.60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0.30~0.40이면 약한 상관관계, 그리고 0.20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주2)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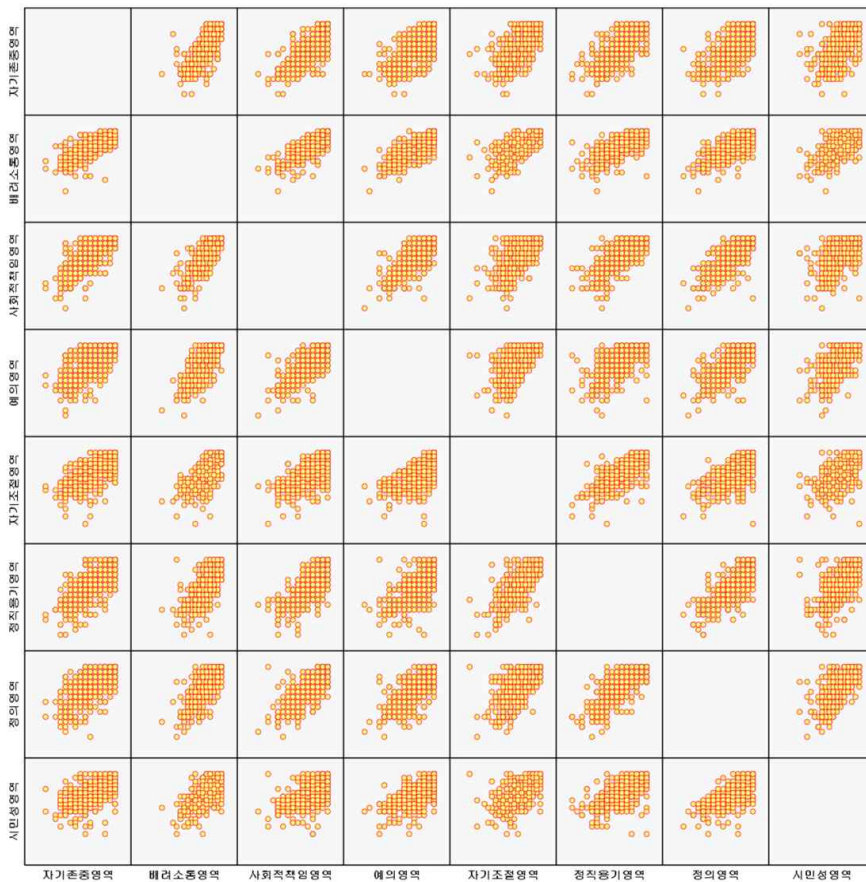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자기존중 영역은 배려와 소통(r=.752), 사회적 책임(r=.752), 정직과 용기(r=.713) 영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려와 소통 영역은 사회적 책임(r=.818), 예의(r=.775), 정의(r=.765), 자기존중(r=.752), 정직과 용기(r=.717) 영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책임 영역은 배려와 소통(r=.818), 예의(r=.780), 정의(r=.767), 자기존중(r=.752), 정직과 용기(r=.720) 영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의 영역은 사회적 책임(r=.780), 배려와 소통(r=.775), 정의

($r=.732$)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조절 영역은 정직과 용기($r=.730$)와 정직과 용기 영역은 정의($r=.763$), 자기조절($r=.730$), 사회적 책임($r=.720$), 배려와 소통($r=.717$), 자기존중($r=.713$) 영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의의 영역은 사회적 책임($r=.767$), 배려와 소통($r=.765$), 정직과 용기($r=.763$), 예의($r=.732$), 시민성($r=.706$) 영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시민성은 정의($r=.706$)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인성 수준 영역들 간의 관계는 산포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로 서로 공통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볼 수 있다(<그림 V-1>참조).



<그림 V-1> 인성 수준 요인별 행렬산점도

한편, 자기존중 영역은 예의($r=.680$), 자기조절($r=.643$), 정의($r=.694$), 시민성($r=.600$) 영역들과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려와 소통 영역은 자기조절($r=.683$), 시민성($r=.681$) 영역들과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도 자기조절($r=.630$), 시민성($r=.597$) 영역들과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의 영역은 자기조절($r=.632$), 정직과 용기($r=.658$), 시민성($r=.658$) 영역들과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조절 영역 역시 정의($r=.628$)와 시민성($r=.581$), 정직과 용기 영역은 시민성($r=.635$) 영역과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인성 수준 영역 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정직과 용기, 정의 등 네 가지 요소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기존중과 예의 영역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과 시민성은 인성 수준의 다른 영역들과 보통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기조절 영역은 정직과 용기 영역과 시민성 영역은 정의 영역에서만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성 수준 각 영역별로 특정 영역이 높아질수록 다른 영역들도 동일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정직과 용기, 정의, 자기존중, 예의 등 영역들 간의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 영역들 상호간의 중요성도 함께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인성 수준 요인별 집단 간 차이분석

(1) 성별 인성 수준 차이

부모의 인성 수준 영역과 응답자의 개인 특성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V-20>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배려와 소통, 자기조절에 대한 의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영역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려와 소통 영역에서 어머니(4.13)가 아버지(3.96)보다 0.17 높게 나타났고, 자기조절 영역에서는 어머니(3.86)가 아버지(3.70)보다 0.16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자기존중, 사회적 책임, 예의, 정직과 용기, 정의, 시민성 등 나머지 영역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인성 수준이 아버지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V-20> 성별과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 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 체	445	-	4.06	.534	-	-	-
자기존중	여성 339	4.02	4.03	.637	.060	.844	.399
	남성 106		3.97	.624			
배려와 소통	여성 339	4.09	4.13	.591	.172	2.621	.009**
	남성 106		3.96	.583			
사회적 책임	여성 339	4.24	4.27	.593	.125	1.883	.060
	남성 106		4.15	.605			
예의	여성 339	4.30	4.32	.608	.083	1.256	.210
	남성 106		4.23	.561			
자기조절	여성 339	3.82	3.86	.671	.153	2.028	.043*
	남성 106		3.70	.698			
정직과 용기	여성 339	3.94	3.95	.632	.049	.687	.492
	남성 106		3.90	.658			
정의	여성 339	4.15	4.16	.627	.012	.180	.857
	남성 106		4.14	.585			
시민성	여성 339	3.91	3.92	.614	.052	.734	.463
	남성 106		3.87	.713			

주1) 독립표본 T-검정(t-test) 실시 전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로 $\alpha=.05$ 수준에서 $p>.05$ 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주2) * $p<.05$, ** $p<.01$, *** $p<.001$

(2) 자녀수별 인성 수준 차이

부모의 인성 수준 영역과 응답자의 개인의 특성 중 자녀 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21>과 같다.

자녀수별로 부모의 인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시민성에서만 나타났는데, 자녀수가 3명인 집단의 시민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3명 이상은 4.01, 1명인 경우는 3.91, 2명의 경우는 3.83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자기존중, 자기조절, 정직과 용기, 정의 등 영역에서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만 2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 집단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1> 자녀수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 분		전체 (n=445)	1명 (n=61)	2명 (n=213)	3명 이상 (n=171)	검정값 (유의수준) F(p)
자기존중	평균	4.02	3.95	4.01	4.05	.534
	표준편차	.634	.641	.626	.643	(.587)
배려와소통	평균	4.09	4.09	4.08	4.10	.068
	표준편차	.593	.628	.595	.580	(.934)
사회적책임	평균	4.24	4.25	4.27	4.21	.388
	표준편차	.597	.619	.593	.598	(.679)
예의	평균	4.30	4.27	4.32	4.28	.246
	표준편차	.597	.706	.584	.574	(.782)
자기조절	평균	3.82	3.71	3.83	3.85	.883
	표준편차	.680	.744	.684	.651	(.414)
정직과용기	평균	3.94	3.89	3.93	3.95	.241
	표준편차	.638	.660	.646	.622	(.786)
정의	평균	4.15	4.08	4.16	4.16	.466
	표준편차	.616	.683	.619	.590	(.628)
시민성	평균	3.91	3.91	3.83	4.01	3.901
	표준편차	.638	.697	.669	.562	(.021*)

주1) 등분산 가정

(3) 부모의 연령별 인성 수준 차이

부모의 인성 수준 영역과 응답자의 개인의 특성 중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V-22>와 같다.

부모들의 인성 수준 영역별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부모들의 연령별 인성 수준은 시민성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대 이상(4.00)이 40대 미만(3.87) 집단 보다 시민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자기조절 영역을 제외한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정직과 용기, 정의 등의 영역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2> 연령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 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 체		445	-	4.06	.534	-	-	-
자기존중	40대 이하	300	4.02	3.98	.633	-.120	-1.876	.061
	50대 이상	145		4.10	.630			
배려와소통	40대 이하	300	4.09	4.07	.607	-.053	-.882	.378
	50대 이상	145		4.13	.563			
사회적책임	40대 이하	300	4.24	4.21	.606	-.085	-1.402	.162
	50대 이상	145		4.30	.578			
예의	40대 이하	300	4.30	4.27	.609	-.072	-1.196	.232
	50대 이상	145		4.35	.571			
자기조절	40대 이하	300	3.82	3.82	.683	-.001	-.010	.992
	50대 이상	145		3.82	.676			
정직과용기	40대 이하	300	3.94	3.92	.625	-.059	-.918	.359
	50대 이상	145		3.98	.663			
정의	40대 이하	300	4.15	4.12	.621	-.093	-1.486	.138
	50대 이상	145		4.22	.603			
시민성	40대 이하	300	3.91	3.87	.650	-.127	-1.977	.049*
	50대 이상	145		4.00	.606			

주1) 독립표본 T-검정(t-test) 실시 전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로 $\alpha=.05$ 수준에서 $p>.05$ 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주2) * $p<.05$, ** $p<.01$, *** $p<.001$

(4) 학력별 인성 수준 차이

부모의 인성 수준과 개인의 특성 중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V-23>과 같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시민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 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보다 4가지 인성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민성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려와 소통 변수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4.15)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4.01)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책임 변수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4.30)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4.16)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의 변수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4.36)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4.21)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민성 변수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3.99)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3.80) 집단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자기존중, 자기조절, 정직과 용기, 정의 등 나머지 영역에서도 대학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졸업 이하 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23> 학력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체		445	-	4.06	.534	-	-	-
자기 존중	고등졸업 이하	183	4.02	3.95	.645	-.109	-1.786	.075
	대학졸업 이상	262		4.06	.623			
배려와 소통	고등졸업 이하	183	4.09	4.01	.608	-.138	-2.434	.015*
	대학졸업 이상	262		4.15	.576			
사회적 책임	고등졸업 이하	183	4.24	4.16	.577	-.137	-2.388	.017*
	대학졸업 이상	262		4.30	.606			
예의	고등졸업 이하	183	4.30	4.21	.613	-.142	-2.473	.014*
	대학졸업 이상	262		4.36	.580			
자기 조절	고등졸업 이하	183	3.82	3.75	.657	-.127	-1.948	.052
	대학졸업 이상	262		3.87	.692			
정직과 용기	고등졸업 이하	183	3.94	3.88	.607	-.102	-1.659	.098
	대학졸업 이상	262		3.98	.656			
정의	고등졸업 이하	183	4.15	4.11	.625	-.068	-1.151	.250
	대학졸업 이상	262		4.18	.610			
시민성	고등졸업 이하	183	3.91	3.80	.657	-.193	-3.170	.002**
	대학졸업 이상	262		3.99	.614			

주1) 독립표본 T-검정(t-test) 실시 전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로 $\alpha=.05$ 수준에서 $p>.05$ 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주2) * $p<.05$, ** $p<.01$, *** $p<.001$

(5) 직업별 인성 수준 차이

부모들의 인성 수준과 개인적 특성 중 직업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24>와 같다.

부모들의 직업군에 따라 정직과 용기를 제외하고 그 외 인성 집단 간에는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시민성 등은 사무직군, 자영업군, 기타, 서비스직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의에 대한 의식에서만 사무직군, 자영업군, 서비스직군, 기타 직업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기존중 영역에서 사무직군(4.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자영업군(4.10), 기타(3.93), 서비스직군(3.85) 순으로 나타났고, 배려와 소통 영역에서도 사무직군(4.19)이 가장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으며, 자영업군(4.10), 기타(4.06), 서비스직군(3.97)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전체적인 평균이 3.9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군이 3.93으로 가장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고, 자영업군(3.87), 기타(3.76), 서비스직군(3.68)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 영역에서는 사무직군(4.27), 자영업군(4.26) 순으로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으나 앞서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서비스직군(4.03)이 기타(4.00)보다 약간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다.

시민성 영역에서는 앞서 다른 영역들과 동일한 흐름으로 사무직군(4.08)이 가장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자영업군(3.91), 기타(3.79), 서비스직군(3.74) 순으로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책임 및 예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전체적인 평균이 각 4.24, 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군(4.38, 4.45), 자영업군(4.24, 4.28), 기타(4.19, 4.23), 서비스직군(4.09, 4.15)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지역 부모의 인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사무직군과 자영업군이 기타 및 서비스직군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24> 직업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 분		전체 (n=445)	자영업군 (n=96)	서비스직군 (n=100)	사무직군 (n=147)	기타 (n=102)	검정값 (유의수준) F(p)
자기 존중	평균	4.02	4.10	3.85	4.14	3.93	5.437 (.001**)
	표준편차	.634	.580	.662	.618	.636	
배려와 소통	평균	4.09	4.10	3.97	4.19	4.06	2.799 (.040*)
	표준편차	.593	.604	.604	.555	.608	
사회적 책임	평균	4.24	4.24	4.09	4.38	4.19	4.906 (.002**)
	표준편차	.597	.600	.567	.607	.575	
예의	평균	4.30	4.28	4.15	4.45	4.23	5.862 (.001**)
	표준편차	.597	.608	.578	.565	.610	
자기 조절	평균	3.82	3.87	3.68	3.93	3.76	3.020 (.030*)
	표준편차	.680	.706	.653	.642	.712	
정직과 용기	평균	3.94	3.98	3.84	4.01	3.87	2.070 (.104)
	표준편차	.638	.627	.658	.639	.614	
정의	평균	4.15	4.26	4.03	4.27	4.00	6.460 (.000***)
	표준편차	.616	.576	.594	.600	.649	
시민성	평균	3.91	3.96	3.74	4.08	3.79	7.700 (.000***)
	표준편차	.638	.644	.685	.551	.643	

주1) 등분산 가정

(6) 주거지역별 인성 수준 차이

주거지역에 따라 부모들의 인성 수준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25>와 같다.

부모들의 주거지역별로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과 용기, 정의, 시민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의 평균이 각 지역별 평균보다 높고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성 수준이 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주거지역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분		전체 (n=445)	제주시 동지역 (n=252)	제주시 읍면지역 (n=57)	서귀포시 동지역 (n=78)	서귀포시 읍면지역 (n=58)	검정값 (유의수준) F(p)
자기 존중	평균	4.02	4.05	3.92	4.01	3.99	.631 (.595)
	표준편차	.634	.602	.698	.692	.628	
배려와 소통	평균	4.09	4.10	4.13	4.08	4.02	.396 (.756)
	표준편차	.593	.566	.627	.690	.680	
사회적 책임	평균	4.24	4.28	4.17	4.27	4.13	1.233 (.297)
	표준편차	.597	.568	.698	.626	.574	
예의	평균	4.30	4.33	4.21	4.32	4.22	.977 (.403)
	표준편차	.597	.574	.707	.562	.625	
자기 조절	평균	3.82	3.87	3.80	3.74	3.73	1.092 (.352)
	표준편차	.680	.647	.663	.784	.683	
정직과 용기	평균	3.94	3.96	3.84	3.95	3.89	.663 (.575)
	표준편차	.638	.636	.664	.636	.627	
정의	평균	4.15	4.16	4.10	4.21	4.08	.595 (.619)
	표준편차	.616	.596	.689	.649	.591	
시민성	평균	3.91	3.94	3.88	3.87	3.87	.454 (.715)
	표준편차	.638	.666	.584	.663	.529	

주1) 등분산 가정

주2) * p<.05, ** p<.01, *** p<.001

주거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각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V-26>과 같다.

부모들의 인성 영역별 수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에 따른 부모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정의 영역의 제주시(4.15)와 서귀포시(4.15)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높았으며, 읍면지역 보다는 동지역의 인성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V-26> 주거지역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 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체	445	-	3.75	.585	-	-	-
자기 존중	제주시	309	4.02	4.02	.020	.312	.755
	서귀포시	136		4.00			
	동지역	330		4.04	.082	1.190	.235
	읍면지역	115		3.96			
배려와 소통	제주시	309	4.09	4.11	.051	.834	.405
	서귀포시	136		4.06			
	동지역	330		4.10	.020	.309	.758
	읍면지역	115		4.08			
사회적 책임	제주시	309	4.24	4.26	.044	.714	.476
	서귀포시	136		4.21			
	동지역	330		4.27	.123	1.901	.058
	읍면지역	115		4.15			
예의	제주시	309	4.30	4.31	.032	.527	.598
	서귀포시	136		4.27			
	동지역	330		4.33	.110	1.590	.114
	읍면지역	115		4.22			
자기 조절	제주시	309	3.82	3.86	.118	1.692	.091
	서귀포시	136		3.74			
	동지역	330		3.84	.069	.944	.346
	읍면지역	115		3.77			
정직과 용기	제주시	309	3.94	3.94	.013	.193	.847
	서귀포시	136		3.93			
	동지역	330		3.96	.093	1.353	.180
	읍면지역	115		3.87			
정의	제주시	309	4.15	4.15	.000	-.003	.998
	서귀포시	136		4.15			
	동지역	330		4.17	.082	1.226	.221
	읍면지역	115		4.09			
시민성	제주시	309	3.91	3.93	.065	.993	.321
	서귀포시	136		3.87			
	동지역	330		3.92	.049	.780	.436
	읍면지역	115		3.87			

주1) 등분산 가정

주2) * p<.05, ** p<.01, *** p<.001

(7) 가구 월평균소득별 인성 수준 차이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른 부모들의 인성 수준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27>과 같다.

부모들의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 인성 영역 중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영역 모두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인성수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미한 인성 영역 모두 가구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 400-6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순으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영역별 인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존중 영역에서 600만원 이상 집단이 4.16으로 가장 높은 인성 수준을 보이고, 400~600만원 미만은 4.11, 200~400만원 집단은 3.91, 200만원 미만 집단은 3.87의 평균을 보였다.

배려와 소통 및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도 6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4.24, 4.38로 가장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400~600만원 미만(4.13, 4.33), 200~400만원 미만(4.05, 4.17), 200만원 미만(3.92, 4.04)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예의, 자기조절, 정직과 용기, 정의 등 나머지 영역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성 수준은 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영역별 인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27> 가구 월평균소득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 분		전체 (n=445)	200만원 미만 (n=63)	200-400 만원미만 (n=158)	400-600 만원미만 (n=137)	600만원 이상 (n=87)	검정값 (유의수준) F(p)
자기 존중	평균	4.02	3.87	3.91	4.11	4.16	5.284 (.001**)
	표준편차	.634	.654	.650	.571	.638	
배려와 소통	평균	4.09	3.92	4.05	4.13	4.24	4.172 (.006**)
	표준편차	.593	.672	.569	.580	.562	
사회적 책임	평균	4.24	4.04	4.17	4.33	4.38	5.750 (.001**)
	표준편차	.597	.675	.597	.551	.561	
예의	평균	4.30	4.21	4.26	4.33	4.38	1.256 (.289)
	표준편차	.597	.690	.597	.546	.601	
자기 조절	평균	3.82	3.77	3.76	3.83	3.95	1.499 (.214)
	표준편차	.680	.733	.698	.646	.652	
정직과 용기	평균	3.94	3.87	3.91	3.93	4.03	1.015 (.386)
	표준편차	.638	.666	.653	.615	.621	
정의	평균	4.15	4.09	4.11	4.18	4.23	1.074 (.360)
	표준편차	.616	.697	.644	.562	.584	
시민성	평균	3.91	3.79	3.87	3.82	4.06	2.432 (.065)
	표준편차	.638	.676	.668	.606	.587	

주1) 등분산 가정

(8) 제주도 거주기간별 인성 수준 차이

제주도 거주기간에 따라 부모들의 인성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28>과 같다.

부모들의 제주도 거주기간과 인성 영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부모의 인성 수준 모든 영역에서 제주도 거주기간이 9년 미만인 9년 이상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려와 소통, 시민성 영역이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각 0.150, 0.113으로 다소 높은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V-28> 제주도 거주기간별 인성 수준 평균비교

구 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 수준 (Sig.)
전체	445	-	4.06	.534	-	-	-
자기 존중	9년 미만	47	4.02	4.05	.038	.388	.698
	9년 이상	398		4.01			
배려와 소통	9년 미만	47	4.09	4.23	.150	1.645	.101
	9년 이상	398		4.08			
사회적 책임	9년 미만	47	4.24	4.30	.067	.726	.468
	9년 이상	398		4.24			
예의	9년 미만	47	4.30	4.31	.015	.159	.874
	9년 이상	398		4.30			
자기 조절	9년 미만	47	3.82	3.87	.058	.555	.579
	9년 이상	398		3.81			
정직과 용기	9년 미만	47	3.94	3.98	.049	.494	.622
	9년 이상	398		3.93			
정의	9년 미만	47	4.15	4.20	.048	.504	.614
	9년 이상	398		4.15			
시민성	9년 미만	47	3.91	4.01	.113	1.151	.250
	9년 이상	398		3.90			

주1) 독립표본 T-검정(t-test) 실시 전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로 $\alpha=.05$ 수준에서 $p>.05$ 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주2) * $p<.05$, ** $p<.01$, *** $p<.001$

(9) 인성 변수의 수준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에 대한 소결

부모들의 인성 수준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들의 성별에 따라서는 배려와 소통, 자기조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2가지 변수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시민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수가 3명인 집단의 시민성이 가장 높았다.

부모들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시민성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50대 이상이 40대 미만 보다 시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시민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대학 졸업 이상의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보다 4가지 인성 변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시민성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부모들의 직업에서는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의, 시민성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존중 변수와 자기조절 변수는 사무직군에서 가장 높은 인성 수준을 보였다.

정의 변수에서는 사무직군과 자영업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시민성 영역과 사회적 책임 변수에서도 사무직군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 및 예의 변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 보다 전체적인 평균이 4.24, 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 부모들의 인성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별로 부모들의 인성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에서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인성수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거주기간별로 부모의 인성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주지역 자녀의 회복탄력성 정도

가. 조사대상 응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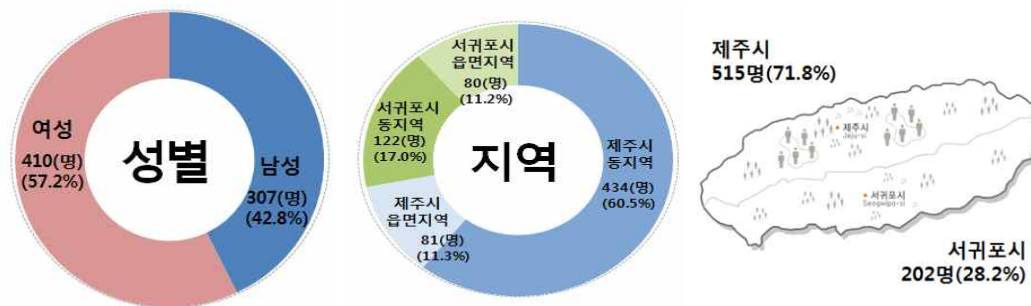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 현황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V-29>와 같다.

제주지역 고등학교 총 33곳 2학년 1개 반 고등학생 총 71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자 중 여학생 57.2%(410명)이고, 남학생 42.8%(307명)이다.

주거지역은 제주시 동지역(434명, 60.5%)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다음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17.0%(122명), 제주시 읍면지역 11.3%(81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11.2%(80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은 행정시별로 제주시 71.8%(515명), 서귀포시 28.2%(202명)이며, 행정구역별로 동지역 77.5%(556명), 읍면지역 22.5%(161명)로 조사되었다.

<표 V-29> 청소년 인구 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여 성	410	57.2
	남 성	307	42.8
	합 계	717	100.0
주거지역	제주시 동지역	434	60.5
	제주시 읍면지역	81	11.3
	서귀포시 동지역	122	17.0
	서귀포시 읍면지역	80	11.2
	합 계	717	100.0



<그림 V-2> 학생 성별 및 주거지역

나. 자녀의 회복탄력성 수준 정도

1) 회복탄력성 수준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수는 총 27문항으로 총 135점 중 회복탄력성 지수의 평균은 101.21점으로 나타났다 (<표 V-30> 참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103.94점, 여학생은 99.16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101.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 동지역 101.48, 서귀포시 읍면지역 101.14점, 제주시 읍면지역 99.2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0>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지수 평균

구 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오차	표준편차
전체 (N=717)	101.21	31.0	134.0	.589	15.781
여학생 (N=410)	99.16	34.0	134.0	.760	15.381
남학생 (N=307)	103.94	31.0	134.0	.909	15.917
제주시 동지역 (N=434)	101.48	31.0	134.0	.742	15.467
제주시 읍면지역 (N=81)	99.25	34.0	131.0	1.817	16.351
서귀포시 동지역 (N=122)	101.59	52.0	132.0	1.575	17.400
서귀포시 읍면지역 (N=80)	101.14	51.0	128.0	1.608	14.381

조사 대상 청소년 회복탄력성의 영역별 지수 평균은 <표 V-31>과 같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자기조절력 평균은 32.77점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32.0, 남학생은 33.8이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4.18점이고 여학생은 33.72점, 남학생은 34.79점이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긍정성 평균은 34.25점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33.43점, 남학생은 35.36점이다.

<표 V-31> 청소년 회복탄력성의 영역별 지수 평균

구 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오차	표준편차
전체 (N=717)	자기조절력	32.77	10.0	45.0	.209	5.605
	대인관계능력	34.18	11.0	45.0	.225	6.016
	긍정성	34.25	9.0	45.0	.244	6.525
여학생 (N=410)	자기조절력	32.00	14.0	45.0	.266	5.377
	대인관계능력	33.72	11.0	45.0	.285	5.772
	긍정성	33.43	9.0	45.0	.323	6.533
남학생 (N=307)	자기조절력	33.80	10.0	45.0	.328	5.745
	대인관계능력	34.79	11.0	45.0	.359	6.286
	긍정성	35.36	10.0	45.0	.363	6.360

(1) 자기조절력

학생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의 경우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 하위요소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V-32>와 같다.

인성 수준 각 영역별로 긍정의 응답을 살펴보면, 자기존중의 경우 ‘약간 그렇다’에 39.6%, ‘매우 그렇다’에 32.7% 응답하였고, 배려와 소통의 경우 ‘약간 그렇다’에 45.5%, ‘매우 그렇다’에 33.3% 응답하였다.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소별 긍정의 응답을 살펴보면, 감정조절력이 ‘약간

그렇다'에 39.5%, '매우 그렇다'에 23.3% 응답하였고, 충동통제력에는 '약간 그렇다'에 33.1%, '매우 그렇다'에 11.3%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원인분석력의 경우 '약간 그렇다'에 46.4%, '매우 그렇다'에 22.5%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한편, 자기조절력 영역의 하위요소별로 긍정의 응답은 원인분석력(68.9%), 감정조절력(62.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충동통제력은 4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자기조절력 영역의 하위요소별로 부정의 응답에서 충동통제력(18.3%)이 감정조절력(9.5%), 원인분석력(6.7%)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이 특정한 문제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력과 감정조절력은 높으나, 충동통제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2> 자기조절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빈도

구 분 (n=2,151)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빈도, 명) (비중, %)	(빈도, 명) (비중, %)	(빈도, 명) (비중, %)
전혀 아니다	37	67	31
	1.7	3.1	1.4
약간 아니다	167	326	115
	7.8	15.2	5.3
보통이다	596	802	523
	27.7	37.3	24.3
약간 그렇다	850	713	998
	39.5	33.1	46.4
매우 그렇다	501	243	484
	23.3	11.3	22.5

학생 응답대상자들의 자기조절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33>과 같다.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각 하위요소 모두에서 남학생의 긍정 응답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 응답의 경우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감정조절력의 경우, 긍정의 응답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65.8%)과 제주시 읍면지역(6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동통제력의 경우, 감정조절력과 원인분석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의 응답이 남학생(53.0%)과 여학생(38.0%)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의 응답에서 여학생이 20.5%로 남학생(15.3%)보다 높았다.

원인분석력의 경우, 긍정의 응답이 남학생 71.9%, 여학생 66.7%로 감정조절력 및 충동통제력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고, 부정의 응답 비중이 남학생 6.8%, 여학생 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원인분석력은 주거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70.1%), 서귀포시 읍면지역(70.0%)이 긍정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부정의 응답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동통제력에서 여학생의 긍정 응답(38.0%)이 부정 응답(20.5%)과의 차이가 감정조절력과 원인분석력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도 충동통제력에 대한 긍정의 응답(53.0%)이 감정조절력(67.3%)과 원인분석력(71.9%)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는 감정조절력(65.8%), 원인분석력(70.0%)에 대한 긍정의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충동통제력에 대한 부정의 응답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V-33> 자기조절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교차분석

구 분 (n=2,151)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성 별	감정 조절력	여성	24	111	364	480	251	20.898	.000***						
			2.0	9.0	29.6	39.0	20.4								
	남성	13	56	232	370	250	61.963			.000***					
		1.4	6.1	25.2	40.2	27.1									
	충동 조절력	여성	45	207	510	374					94	21.345	.000***		
			3.7	16.8	41.5	30.4					7.6				
	남성	22	119	292	339	149		9.845	.630						
		2.4	12.9	31.7	36.8	16.2									
	원인 분석력	여성	13	71	326	580	240			38.851	.000***				
			1.1	5.8	26.5	47.2	19.5								
	남성	18	44	197	418	244	21.140					.048*			
		2.0	4.8	21.4	45.4	26.5									
주 거 지 역	감정 조절력	제주시 동지역	24	105	371	483		319	9.845				.630		
			1.8	8.1	28.5	37.1		24.5							
		제주시 읍면지역	3	20	61	113		46		38.851	.000***				
			1.2	8.2	25.1	46.5		18.9							
	서귀포시 동지역	8	21	105	140	92	21.140	.048*							
		2.2	5.7	28.7	38.3	25.1									
	서귀포시 읍면지역	2	21	59	114	44						9.845		.630	
		0.8	8.8	24.6	47.5	18.3									
	충동 조절력	제주시 동지역	35	197	508	414				148	38.851				.000***
			2.7	15.1	39.0	31.8				11.4					
		제주시 읍면지역	8	37	88	85	25	21.140		.048*					
			3.3	15.2	36.2	35.0	10.3								
서귀포시 동지역	15	52	123	128	48	9.845	.630								
	4.1	14.2	33.6	35.0	13.1										
서귀포시 읍면지역	9	40	83	86	22				38.851			.000***			
	3.8	16.7	34.6	35.8	9.2										
원인 분석력	제주시 동지역	16	62	311	598			315		9.845			.630		
		1.2	4.8	23.9	45.9			24.2							
	제주시 읍면지역	3	22	68	104	46	21.140	.048*							
		1.2	9.1	28.0	42.8	18.9									
서귀포시 동지역	10	19	86	157	94	9.845			.630						
	2.7	5.2	23.5	42.9	25.7										
서귀포시 읍면지역	2	12	58	139	29						38.851	.000***			
	0.8	5.3	24.3	57.9	12.1										

자기조절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자기조절력 및 하위영역별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를 확인한 결과(<표 V-34> 참조), 원인분석력이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정조절력 3.75, 충동통제력 3.34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 감정조절력의 ‘내가 하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4.02)을 보였고, 충동통제력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3.10)이 가장 낮았다.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중 충동을 통제하는 정도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 V-34> 자기조절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수준 정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자기조절력	3.64	.623	72.8%
① 감정조절력	3.75	.746	75.0%
나는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3.59	1.013	71.8%
내가 하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다	4.02	.847	80.4%
어떤 주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3.64	.942	72.8%
② 충동통제력	3.34	.741	66.8%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3.10	1.013	62.0%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3.52	.955	70.4%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3.41	.890	68.2%
③ 원인분석력	3.83	.748	76.6%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94	.900	78.8%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84	.904	76.8%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	3.71	.836	74.2%

(2) 대인관계능력 영역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의 경우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 하위 요소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V-35>와 같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소별 긍정의 응답을 살펴보면, 소통능력이 ‘약간 그렇다’에 38.4%, ‘매우 그렇다’에 19.2%였고, 공감능력이 ‘약간 그렇다’에 44.2%, ‘매우 그렇다’에 24.6%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자아확장력의 긍정 응답률은 ‘약간 그렇다’에 38.8%, ‘매우 그렇다’에 29.8%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하위요소별로 긍정의 응답은 공감능력(68.8%), 자아확장력(68.6%), 소통능력(57.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의 응답의 경우도 공감능력(5.8%), 자아확장력(1.7%), 소통능력(10.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하위요소별로 부정의 응답에서 소통능력(10.9%)이 공감능력(5.8%) 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주변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감 능력과 자아확장력에서 다소 뛰어나지만, 소통능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35>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빈도

구분 (n=2,151)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빈도, 명) (비중, %)	(빈도, 명) (비중, %)	(빈도, 명) (비중, %)
전혀 아니다	59	18	41
	2.7	0.8	1.9
약간 아니다	177	107	110
	8.2	5.0	5.1
보통이다	677	545	525
	31.5	25.3	24.4
약간 그렇다	825	951	835
	38.4	44.2	38.8
매우 그렇다	413	530	640
	19.2	24.6	29.8

학생 응답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소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36>과 같다. 대인관계능력의 세 하위요소는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각 하위요소 모두에서 긍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소통능력의 경우, 긍정의 응답이 여학생(53.0%)보다 남학생(63.6%)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시 동지역은 60.3%로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았다.

공감능력의 경우도 역시 여학생(67.3%)보다 남학생(70.9%)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소통능력, 자아확장력 보다 작았으며, 부정의 응답에서는 남학생(7.7%)이 여학생(5.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거지역별로 공감능력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긍정의 응답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 68.8%, 서귀포시 동지역 67.4%, 제주시 읍면지역 66.7%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자아확장력의 경우에도 남학생(71.9%)이 여학생(66.1%)보다 긍정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별 자아확장력의 경우,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72.5%, 서귀포시 동지역 71.3% 순으로 긍정의 응답이 제주시 동지역 68.5%, 제주시 읍면지역 60.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부정의 응답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6> 대인관계능력의 회복탄력성 교차분석

구 분 (n=2,151)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성 별	소 통 능 력	여 성	24	111	443	448	204	40.633	.000***
			2.0	9.0	36.0	36.4	16.6		
		남 성	35	66	234	377	209		
			3.8	7.2	25.4	40.9	22.7		
	공 감 능 력	여 성	6	58	338	573	255	31.240	.000***
			0.5	4.7	27.5	46.6	20.7		
		남 성	12	49	207	378	275		
			1.3	5.3	22.5	41.0	29.9		
	자 아 확 장 력	여 성	24	70	323	461	352	8.516	.074
			2.0	5.7	26.3	37.5	28.6		
		남 성	17	40	202	374	288		
			1.8	4.3	21.9	40.6	31.3		
주 거 지 역	소 통 능 력	제 주 시 동 지 역	22	112	383	514	271	32.153	.001**
			1.7	8.6	29.4	39.5	20.8		
		제 주 시 읍 면 지 역	8	24	88	88	35		
			3.3	9.9	36.2	36.2	14.4		
		서 귀 포 시 동 지 역	21	24	122	132	67		
			5.7	6.6	33.3	36.1	18.3		
		서 귀 포 시 읍 면 지 역	8	17	84	91	40		
			3.3	7.1	35.0	37.9	16.7		
	공 감 능 력	제 주 시 동 지 역	5	65	325	566	341	39.092	.000***
			0.4	5.0	25.0	43.5	26.2		
		제 주 시 읍 면 지 역	4	18	59	109	53		
			1.6	7.4	24.3	44.9	21.8		
		서 귀 포 시 동 지 역	7	16	96	144	103		
			1.9	4.4	26.2	39.3	28.1		
		서 귀 포 시 읍 면 지 역	2	8	65	132	33		
			0.8	3.3	27.1	55.0	13.8		
자 아 확 장 력	제 주 시 동 지 역	21	66	323	505	387	21.255	.047*	
		1.6	5.1	24.8	38.8	29.7			
	제 주 시 읍 면 지 역	5	12	78	93	55			
		2.1	4.9	32.1	38.3	22.6			
	서 귀 포 시 동 지 역	12	18	75	139	122			
		3.3	4.9	20.5	38.0	33.3			
	서 귀 포 시 읍 면 지 역	3	14	49	98	76			
		1.3	5.8	20.4	40.8	31.7			

대인관계능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대인관계능력 및 하위영역별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V-37>과 같다.

대인관계능력의 전체 평균은 3.80이고, 하위영역별로는 소통능력은 3.63, 공감능력 3.87, 자아확장력 3.89로 나타나 제주지역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중 자아확장력이 다른 두 하위영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 자아확장력의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 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4.15)을 보였고, 소통능력의 ‘나는 재미있는 농담을 잘 한다’는 문항의 평균(3.10)이 가장 낮았다.

<표 V-37>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회복탄력성 수준 정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대인관계능력	3.80	.668	76.0%
① 소통능력	3.63	.843	72.6%
나는 재미있는 농담을 잘 한다	3.53	1.047	70.6%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 맞는 적절한 말을 잘 찾아낸다	3.65	.931	73.0%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3.70	.930	47.0%
② 공감능력	3.87	.746	77.4%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4.02	.840	80.4%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3.80	.878	76.0%
친구가 화를 낼 때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3.79	.875	75.8%
③ 자아확장력	3.89	.778	77.8%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3.92	.933	78.4%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3.61	.990	72.2%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4.15	.851	83.0%

(3) 긍정성 영역

학생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의 경우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등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결과는 <표 V-38>과 같다.

긍정성의 하위요소별 긍정의 응답을 살펴보면, 자아낙관성이 ‘약간 그렇다’에 36.1%, ‘매우 그렇다’에 25.3%였고, 생활만족도가 ‘약간 그렇다’ 34.4%, ‘매우 그렇다’에 21.8% 긍정 응답을 하였다.

마지막 감사 하위영역에서는 ‘약간 그렇다’에 37.7%, ‘매우 그렇다’에 37.7%의 긍정 응답을 하였다.

한편, 긍정성 영역의 하위요소별로 긍정의 응답은 감사(75.4%), 자아낙관성(61.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는 56.2%로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긍정성 영역의 하위요소별로 부정의 응답에서 생활만족도(13.6%)와 자아낙관성(11.7%)이 감사(4.0%)보다 매우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이 긍정적 정서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 중 고마움을 느끼는 감사에 대한 역량은 높으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생활만족도와 자아낙관성에 대한 부정의 응답이 감사에 대한 부정의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을 감안한다면, 긍정성의 두 하위영역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V-38> 긍정성 영역의 응답 빈도

구분 (n=2,151)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빈도, 명) (비중, %)	(빈도, 명) (비중, %)	(빈도, 명) (비중, %)
전혀 아니다	61	63	21
	2.8	2.9	1.0
약간 아니다	191	230	65
	8.9	10.7	3.0
보통이다	578	648	444
	26.9	30.1	20.6

약간 그렇다	776	741	810
	36.1	34.4	37.7
매우 그렇다	545	469	811
	25.3	21.8	37.7

학생 응답대상자들의 긍정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39>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모든 영역에서 긍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아낙관성의 경우, 긍정의 응답이 여학생(57.8%) 보다 남학생(66.3%)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긍정의 응답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시 동지역이 5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경우도 남학생(66.1%)이 여학생(48.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자아낙관성과 감사 보다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정의 응답에서는 여성이 15.4%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주거지역별로 생활만족도는 서귀포시 동지역(59.0%)이 제주시 동지역(56.9%)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55.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제주시 읍면지역(49.3%)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주거지역별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부정의 응답은 서귀포시 동지역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시 읍면지역 13.6%, 제주시 동지역 13.4%, 서귀포시 읍면지역 12.5%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경우 긍정의 응답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정의 응답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는데,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에 비해 긍정의 응답 비율이 크게 높았지만 부정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감사의 경우 전 지역에서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긍정의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80.0%의 가장 높은 긍정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V-39> 응답자 특성과 긍정성 영역의 교차분석

구 분 (n=2,151)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Sig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성별	자아낙관성	여성	41	105	373	430	281	23.672	.000***
			3.3	8.5	30.3	35.0	22.8		
		남성	20	86	205	346	264		
			2.2	9.3	22.3	37.6	28.7		
	생활만족도	여성	38	151	440	404	197	83.673	.000***
			3.1	12.3	35.8	32.8	16.0		
		남성	25	79	208	337	272		
			2.7	8.6	22.6	36.6	29.5		
	감사	여성	13	44	282	452	439	14.107	.007**
			1.1	3.6	22.9	36.7	35.7		
남성		8	21	162	358	372			
		0.9	2.3	17.6	38.9	40.4			
주거지역	자아낙관성	제주시 동지역	32	124	378	462	306	20.296	.062
			2.5	9.5	29.0	35.5	23.5		
		제주시 읍면지역	9	21	63	80	70		
			3.7	8.6	25.9	32.9	28.8		
		서귀포시 동지역	14	28	91	137	96		
			3.8	7.7	24.9	37.4	26.2		
		서귀포시 읍면지역	6	18	46	97	73		
			2.5	7.5	19.2	40.4	30.4		
	생활만족도	제주시 동지역	34	141	387	467	273	23.202	.026*
			2.6	10.8	29.7	35.9	21.0		
		제주시 읍면지역	7	26	90	73	47		
			2.9	10.7	37.0	30.0	19.3		
		서귀포시 동지역	16	39	95	112	104		
			4.4	10.7	26.0	30.6	28.4		
		서귀포시 읍면지역	6	24	76	89	45		
			2.5	10.0	31.7	37.1	18.8		
감사	제주시 동지역	12	38	281	473	498	10.424	.579	
		0.9	2.9	21.6	36.3	38.2			
	제주시 읍면지역	3	6	49	105	80			
		1.2	2.5	20.2	43.2	32.9			
	서귀포시 동지역	4	12	77	132	141			
		1.1	3.3	21.0	36.1	38.5			
	서귀포시 읍면지역	2	9	37	100	92			
		0.8	3.8	15.4	41.7	38.3			

긍정성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긍정성 및 하위영역별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V-40>과 같다.

긍정성의 전체 평균은 3.81이고, 하위영역별로는 자아낙관성은 3.72, 생활만족도 3.62, 감사 4.08로 나타나 제주지역 학생들의 긍정성 중 감사가 다른 두 하위영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 감사의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4.18)을 보였고, 생활만족도의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3.43)이 가장 낮았다.

<표 V-40> 청소년의 긍정성 정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긍 정 성	3.81	.725	76.2%
① 자아낙관성	3.72	.865	74.4%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3.88	1.049	77.6%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79	.999	75.8%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50	.995	70.0%
② 생활만족도	3.62	.906	72.4%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3.70	.993	74.0%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72	1.053	74.4%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3.43	1.023	68.6%
③ 감사	4.08	.790	81.6%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4.18	.848	83.6%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은 모두 적는다면, 아주 많을 것이다	4.00	.930	80.0%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4.06	.872	81.2%

(4)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수준에 대한 소결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회복탄력성 정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①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의 하위 요소는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이다. 모든 하위 요소에서 긍정의 응답률이 부정의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3 하위 요소 중 원인분석력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충동통제력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자기조절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의 경우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는 감정조절력과 충동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원인분석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조절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자기조절력 및 하위영역별로 평균 점수를 확인한 결과, 감정조절력 3.75, 충동통제력 3.34, 원인분석력 3.83으로 나타나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중 충동을 통제하는 정도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요소는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이다. 모든 하위 요소에서 긍정의 응답률이 부정의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세 가지 하위 요소 중 공감능력과 자아확장력이 소통능력 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에서는 세 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은 제주시 동지역이 가장 높았고, 자아확장력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대인관계능력 및 하위영역별로 평균 점수를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80이고 하위 영역 중 자아확장력(3.89)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공감능력 3.87, 소통능력 3.63 순으로 나타났다.

③ 긍정성

학생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의 경우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등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응답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감사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자아 낙관성, 생활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긍정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모든 영역에서 긍정 응답률의 비율이 높았다.

주거지역에서는 생활만족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귀포시 동지역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순이었다.

또한 긍정성과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긍정성 및 하위영역별로 평균 점수를 확인한 결과, 긍정성의 전체 평균은 3.81이고 세부적으로 자아낙관성은 3.72, 생활만족도는 3.62, 감사는 4.08로 감사가 다른 두 하위영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회복탄력성 영역별 상관분석

(1) 회복탄력성 영역별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 회복탄력성 3가지 영역별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V-41>과 같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3가지 영역별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같은 방향(positive, +)으로 변화하는지 또는 서로 다른 방향(negative, -)으로 변화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관계의 정도(magnitude)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의 관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기조절력은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 모두에서 보통의 상관관계($r=.638$, $r=.554$)를 보이고 있으나, 대인관계능력은 긍정성과 높은 상관관계($r=.704$)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조절력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도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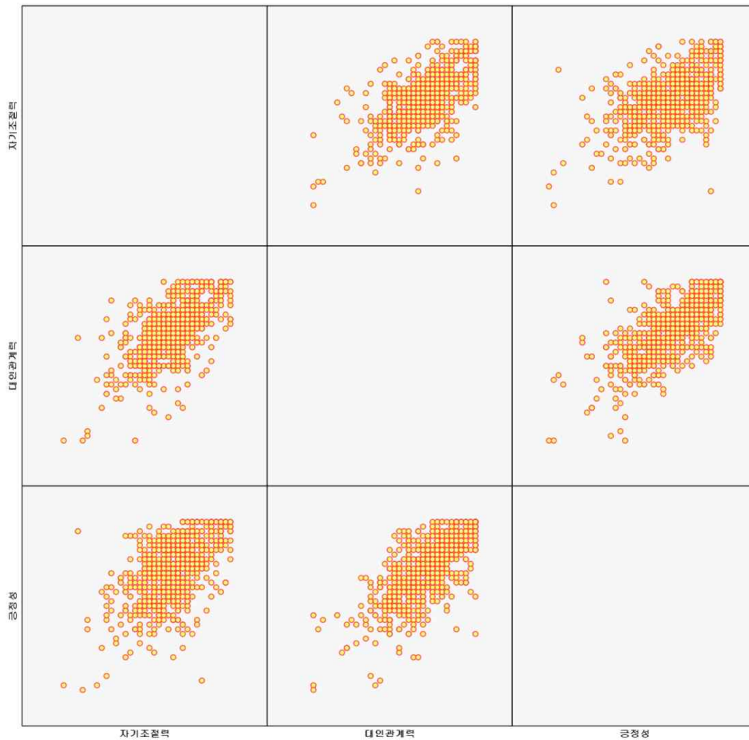
<표 V-41> 회복탄력성 영역 간 상관분석

구 분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자기 조절력	Person 상관계수	1	.638***	.554***
	Sig.(양쪽)		.000	.000
대인관계능력	Person 상관계수	.638***	1	.704***
	Sig.(양쪽)	.000		.000
긍정성	Person 상관계수	.554***	.704***	1
	Sig.(양쪽)	.000	.000	

주1) 보편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0.50~0.60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0.30~0.40이면 약한 상관관계, 그리고 0.20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주2) *** $p<.001$

<그림 V-3>은 회복탄력성 영역별 행렬산점도이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렬산점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이 서로 공통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패턴이다.



<그림 V-3> 회복탄력성 영역별 행렬산점도

(2)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회복탄력성 3가지 영역별 각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V-42>와 같으며, 세부적으로 각 하위요인별로 정(+)의 상관관계로 관계의 정도는 상관계수가 약한 상관관계 이상 ($r \geq .323$)으로 나타난다.

상관관계가 높은 하위요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는 자아확장력과 생활만족도($r=.670$) 간의 관계이며, 다음으로 자아낙관성과 생

활만족도($r=.657$), 공감능력과 소통능력($r=.645$), 감사와 자아확장력($r=.6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2>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구 분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감정 조절력	충동 조절력	원인 분석력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자아 낙관성	생활 만족도	감사	
자기 조 절 력	감정 조절력	Person 상관계수	1	.582**	.548**	.480**	.532**	.464**	.397**	.415**	.354**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동 조절력	Person 상관계수	.582**	1	.514**	.379**	.431**	.348**	.455**	.414**	.323**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원인 분석력	Person 상관계수	.548**	.514**	1	.501**	.535**	.398**	.430**	.364**	.377**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인 관 계 능 력	소통 능력	Person 상관계수	.480**	.379**	.501**	1	.645**	.584**	.507**	.520**	.434**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공감 능력	Person 상관계수	.532**	.431**	.535**	.645**	1	.492**	.450**	.414**	.357**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아 확장력	Person 상관계수	.464**	.348**	.398**	.584**	.492**	1	.580**	.670**	.605**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긍 정 성	자아 낙관성	Person 상관계수	.397**	.455**	.430**	.507**	.450**	.580**	1	.657**	.507**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생활 만족도	Person 상관계수	.415**	.414**	.364**	.520**	.414**	.670**	.657**	1	.570**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감사	Person 상관계수	.354**	.323**	.377**	.434**	.357**	.605**	.507**	.570**	1
		Sig.(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1) 보편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0.50~0.60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0.30~0.40이면 약한 상관관계, 그리고 0.20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주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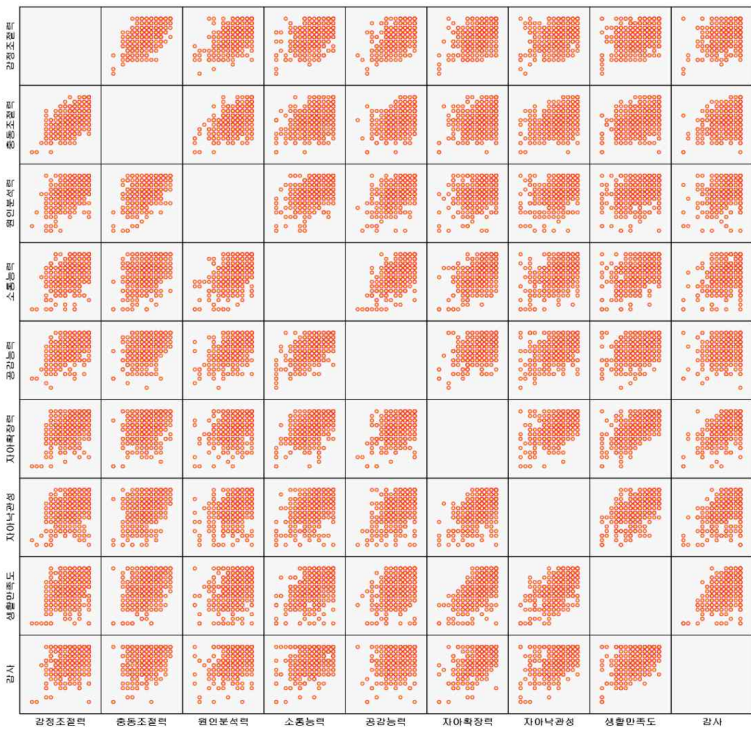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3가지 영역별과 각 하위요인별 간의 관계는 산포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변인 간의 공통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그림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렬산점도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능력 영역 중 자아확장력과 긍정성 영역 중 자아낙관성이 높을수록 긍정성 영역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긍정성 영역에서 자아확장력이 높아질수록 동일 영역의 감사에 대한 요인이 함께 높아지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인관계능력 중 공감능력과 소통능력도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3가지 영역의 하위요인별 영향 관계에서도 영역별 상관관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대인관계능력-긍정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능력 영역 중 자아확장력이 긍정성 영역의 생활만족도와 감사 요인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가지 하위요인 상호간의 중요성도 함께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림 V-4>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행렬산점도

(3) 회복탄력성 요소별 상관분석 결과 소결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3가지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조사하고 그 관계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의 관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은 대인관계능력($r=.638$)과 긍정성($r=.554$) 모두에서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대인관계능력은 긍정성($r=.704$)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 각 하위요인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하위 요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는 자아확장력과 생활만족도($r=.670$) 간의 관계이며, 다음으로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r=.657$), 공감능력과 소통능력($r=.645$), 감사와 자아확장력($r=.6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중 자아확장력이 긍정성 영역의 생활만족도와 감사 요인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상호간의 중요성도 함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회복탄력성 집단 간 차이분석

(1) 회복탄력성 영역별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과 개인적 특성 중 성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43>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3가지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긍정성이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인관계능력 3.87, 자기조절력 3.76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3.75로 가장 높고, 긍정성 3.71, 자기조절력 3.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지역 고등학교 남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여학생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43> 회복탄력성 영역과 성별 간의 평균비교

구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체	717	-	3.75	.585	-	-	-
자기조절력	여성	410	3.56	.597	-.200	-4.304	.000***
	남성	307	3.76	.638			
대인관계능력	여성	410	3.75	.641	-.118	-2.343	.019*
	남성	307	3.87	.698			
긍정성	여성	410	3.71	.726	-.214	-3.950	.000***
	남성	307	3.93	.707			

주1) 등분산 가정

주2) * p<.05, ** p<.01, *** p<.001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과 개인적 특성 중 주거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44>와 같다.

학생들의 주거지역은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자기조절력 영역의 전체 평균(3.64)보다 제주시 동지역(3.65), 서귀포시 동지역(3.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 영역(전체 평균 3.80)에서는 제주시 동지역(3.83), 긍정성 영역(전체 평균 3.81)에서는 서귀포시 동지역(3.83), 서귀포시 읍면지역(3.87)이 전체 평균보다 약간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4> 주거지역별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구 분		전체 (n=717)	제주시 동지역 (n=434)	제주시 읍면지역 (n=81)	서귀포시 동지역 (n=122)	서귀포시 읍면지역 (n=80)	검정값 (유의수준) F(p)
자기조절력	평균	3.64	3.65	3.59	3.67	3.60	.449 (.718)
	표준편차	.623	.611	.628	.707	.543	
대인관계능력	평균	3.80	3.83	3.67	3.78	3.77	1.410 (.239)
	표준편차	.668	.659	.681	.724	.609	
긍정성	평균	3.81	3.79	3.77	3.83	3.87	.390 (.761)
	표준편차	.725	.711	.729	.783	.714	

주1) 등분산 가정

한편, 주거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 <표 V-45>와 같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주거지역별(시·동·읍면)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구 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 체		717	-	3.75	.585	-	-	-
자기조절력	제주시	515	3.64	3.64	.614	.001	.016	.987
	서귀포시	202		3.64	.647			
	동지역	556		3.66	.633	.063	1.124	.261
	읍면지역	161		3.59	.586			
대인관계능력	제주시	515	3.80	3.81	.665	.027	.484	.629
	서귀포시	202		3.78	.679			
	동지역	556		3.82	.674	.101	1.694	.091
	읍면지역	161		3.72	.646			
긍정성	제주시	515	3.81	3.79	.713	-.060	-.989	.323
	서귀포시	202		3.85	.755			
	동지역	556		3.80	.727	-.018	-.276	.783
	읍면지역	161		3.82	.721			

주1) 등분산 가정

(2) 회복탄력성 요인별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과 성별에 따른 하위요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46>과 같다.

<표 V-46> 성별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구 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 체		717	-	3.75	.585	-	-	-
자기 조절 력	① 감정조절력	여성	410	3.75	3.67	-.186	-3.334	.001**
		남성	307		3.86			
	② 충동통제력	여성	410	3.34	3.22	-.299	-5.457	.000***
		남성	307		3.51			
	③ 원인분석력	여성	410	3.83	3.78	-.114	-2.022	.044*
		남성	307		3.90			
대인 관계 능력	④ 소통능력	여성	410	3.63	3.57	-.149	-2.346	.019*
		남성	307		3.72			
	⑤ 공감능력	여성	410	3.87	3.82	-.105	-1.864	.063
		남성	307		3.93			
	⑥ 자아확장력	여성	410	3.89	3.85	-.100	-1.704	.089
		남성	307		3.95			
긍정 성	⑦ 자아낙관성	여성	410	3.72	3.65	-.158	-2.425	.016*
		남성	307		3.81			
	⑧ 생활만족도	여성	410	3.62	3.46	-.352	-5.244	.000***
		남성	307		3.82			
	⑨ 감사	여성	410	4.08	4.02	-.132	-2.213	.027*
		남성	307		4.16			

주1) 등분산 가정

주2) * p<.05, ** p<.01, *** p<.001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자기조절력의 하위 요인은 원인분석력(3.90), 감정조절력(3.86), 충동통제력(3.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원인분석력(3.78), 감정조절력(3.67), 충동통제력(3.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력 하위영역별 차이는 충동조절력(0.299),

감정조절력(0.186), 원인분석력(0.114)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요인 중 소통능력에서만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3.72)이 여학생(3.57)보다 0.149 높게 나타났다.

긍정성에서는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등 모든 하위요인별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하위 요인별 차이는 생활만족도(0.352)가 가장 컸고, 자아낙관성(0.158), 감사(0.132)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하위요인 중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회복탄력성 각 하위요인별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과 주거지역에 따른 하위요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V-47>과 같다.

<표 V-47> 주거지역별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구 분		전체 (n=717)	제주시 동지역 (n=434)	제주시 읍면지역 (n=81)	서귀포시 동지역 (n=122)	서귀포시 읍면지역 (n=80)	검정값 (유의수준) F(p)	
자기 조절 력	감정조절력	평균	3.75	3.74	3.74	3.78	3.74	.111 (.953)
		표준편차	.746	.758	.710	.765	.699	
	충동통제력	평균	3.34	3.34	3.34	3.39	3.30	.242 (.867)
		표준편차	.741	.715	.795	.826	.693	
	원인분석력	평균	3.83	3.87	3.69	3.84	3.75	1.642 (.178)
		표준편차	.748	.736	.760	.837	.642	
대인 관계 능력	소통능력	평균	3.63	3.69	3.49	3.55	3.58	2.077 (.102)
		표준편차	.843	.821	.866	.898	.837	
	공감능력	평균	3.87	3.90	3.78	3.87	3.77	1.94 (.351)
		표준편차	.746	.737	.818	.804	.613	
	자아확장력	평균	3.89	3.90	3.74	3.93	3.96	1.278 (.281)
		표준편차	.778	.778	.733	.825	.741	
긍정 성	자아낙관성	평균	3.72	3.68	3.74	3.75	3.89	1.362 (.253)
		표준편차	.865	.855	.907	.898	.811	
	생활만족도	평균	3.62	3.62	3.52	3.68	3.60	.504 (.680)
		표준편차	.906	.886	.885	1.011	.877	
	감사	평균	4.08	4.08	4.04	4.08	4.13	.169 (.918)
		표준편차	.790	.782	.802	.821	.786	

주1) 등분산 가정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의 각 하위요인별로 주거지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과 주거지역에 따른 하위요인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48>과 같다.

회복탄력성의 각 하위요인에서는 원인분석력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지역(3.86)이 읍면지역(3.72)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8> 주거지역별 (시·동·읍면) 회복탄력성 평균비교

구 분		표본	영역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이	검정값 (t)	유의수준 (Sig.)	
전 체		717	-	3.75	.585	-	-	-	
자 기 조 절 력	감정조절력	제주시	515	3.75	3.74	-.023	-.376	.707	
		서귀포시	202		3.77				.738
		동지역	556		3.75	.759	.015	.229	.819
		읍면지역	161		3.74	.703			
	충동통제력	제주시	515	3.34	3.34	-.013	-.217	.829	
		서귀포시	202		3.35				.775
		동지역	556		3.35	.741	.032	.481	.631
		읍면지역	161		3.32	.744			
	원인분석력	제주시	515	3.83	3.84	.039	.629	.529	
		서귀포시	202		3.80				.765
		동지역	556		3.86	.758	.141	2.107	.035*
		읍면지역	161		3.72	.702			
대 인 관 계 력	소통능력	제주시	515	3.63	3.66	.101	1.446	.149	
		서귀포시	202		3.56				.872
		동지역	556		3.66	.840	.129	1.718	.086
		읍면지역	161		3.53	.850			
	공감능력	제주시	515	3.87	3.88	.047	.752	.453	
		서귀포시	202		3.83				.735
		동지역	556		3.90	.752	.119	1.780	.075
		읍면지역	161		3.78	.721			
	자아확장력	제주시	515	3.89	3.88	-.067	-1.040	.299	
		서귀포시	202		3.94				.791
		동지역	556		3.91	.788	.056	.797	.425
		읍면지역	161		3.85	.742			

긍정성	자아낙관성	제주시	515	3.72	3.69	.863	-.111	-1.553	.121
		서귀포시	202		3.80	.865			
		동지역	556		3.69	.864			
		읍면지역	161		3.82	.861			
	생활만족도	제주시	515	3.62	3.60	.886	-.044	-.558	.557
		서귀포시	202		3.65	.959			
		동지역	556		3.63	.914			
		읍면지역	161		3.56	.879			
	감사	제주시	515	4.08	4.07	.785	-.023	-.379	.727
		서귀포시	202		4.10	.806			
		동지역	556		4.08	.790			
		읍면지역	161		4.08	.793			

주1) 등분산 가정

주2) * p<.05, ** p<.01, *** p<.001

(3) 회복탄력성 집단 간 차이분석 소결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세 가지 영역과 개인적 특성 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과 성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력의 하위영역-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자기조절력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의 경우는 소통능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통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긍정성에서도 모든 하위 영역-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또한 남학생의 긍정성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과 주거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주거지역별 회복탄력성을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력의 원인분석력의 경우에만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차이를 보여,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원인분석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제주지역 부모의 인성과 자녀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가. 인성수준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탐색적 파악

부모 인성수준과 자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49>와 같다.

부모와 자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선정은 부모와 자녀의 각 표본을 대상으로 난수를 생성하여 확률적으로 무작위 400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정준함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표준정준상관계수의 ‘정준함수1’을 활용하여 부모의 인성수준과 자녀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부모의 인성수준 중에서 개인적 차원과 대인적 차원에서 회복탄력성과 정(+)의 관계를 보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9> 인성수준과 회복탄력성과의 정준상관분석

구분 (n=400)	표준정준상관계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			
	정준 함수1	정준 함수2	정준 함수3	정준 함수1	정준 함수2	정준 함수3	정준 함수1	정준 함수2	정준 함수3	
인성수준	I. 개인적 차원	1.510	1.115	.365	.079	.510	.857	.009	.033	.052
	II. 대인적 차원	.264	-1.867	1.088	-.233	-.002	.972	-.027	.000	.059
	III. 사회적 차원	-1.971	1.095	-.470	-.478	.391	.787	-.056	.025	.048
회복탄력성	I. 자기조절력	-.402	.247	1.219	.026	.732	.681	.003	.047	.042
	II. 대인관계능력	-.515	1.004	-1.059	.209	.970	-.127	.024	.063	-.008
	III. 긍정성	1.388	-.269	.235	.806	.572	.150	.094	.037	.009

정준함수	아이젠값	정준 상관계수	Wilks' Lamda	Chi-SQ	DF	Sig	정준중복지수 ^{주1)}	
							Set1	Set2
1	.01388	.117	.979	8.586	9	.476	.001	.003
2	.00420	.065	.992	3.135	4	.535	.001	.003
3	.00375	.061	.996	1.479	1	.224	.003	.001

주1) 회복탄력성에 의해 설명되는 인성수준의 값(중복지수)은 'Set1'이며, 인성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회복탄력성의 값(중복지수)은 'Set2'임.

나. 인성수준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1) 부모 인성 수준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간 관계

각 변수는 다원구조로 구성되어 탐색적으로 살펴본 부모의 인성수준과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세부요인들 간 순수한 상관비교를 위해서 편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50>과 같다.

편상관관계분석은 제3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관련된 두 변수가 갖는 순수한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모 인성 변수를 개인적 자원, 대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자원은 부모 개인적 변수를 포함시켰는데, 자기존중, 자기조절, 정직과 용기를 이에 포함시켰고,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는 대인적 자원에 포함시켰다. 또한 정의와 시민성 변수는 사회적 자원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부모의 인성수준 중 대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적 자원은 긍정성과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인성수준 중 대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의 경우에는 자녀의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표 V-50> 부모의 인성 수준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간 편상관관계

인성수준		구 분	회복탄력성		
요인	통제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개인적자원	대인적자원	상관계수	.380	.054	.398
	사회적자원	Sig.(양쪽)	.450	.279	.049*
대인적자원	개인적자원	상관계수	-.019	-.055	-.016
	사회적자원	Sig.(양쪽)	.699	.276	.753
사회적자원	개인적자원	상관계수	.011	.010	-.065
	대인적자원	Sig.(양쪽)	.821	.835	.194

주1) 보편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0.50~0.60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0.30~0.40이면 약한 상관관계, 그리고 0.20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주2) * p<.05

2) 부모 인성수준에 따른 청소년 회복탄력성 하위영역 간의 관계

부모 인성수준 영역별 자녀 회복탄력성과의 보다 순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성수준 개인적 자원, 대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의 각 세부 요인과 자녀 회복탄력성 간의 편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51>과 같다.

부모의 사회적 자원인 정의와 시민성은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모 인성 중 개인적 자원은 자녀 회복탄력성 중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 자아낙관성, 감사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부모의 자기존중 수준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중 충동통제력($r=.386$)과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기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충동통제력에는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정직과 용기 수준은 자녀 회복탄력성 중 원인분석력($r=.383$)과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정직과 용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원인분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부모 개인적 자원 중 자기조절 수준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중 감정조절력($r=.392$), 소통능력($r=.305$), 자아낙관성($r=.308$), 감사($r=.313$)와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부모의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영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개인적 자원은 청소년들 회복탄력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나 부모의 자기조절 능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 인성의 대인적 자원 중 예의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r=-.304$)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예의 수준이 높은 부모는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결과이다. 이는 어른들 수준의 예의는 청소년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제주도 부모 인성 8개 영역 중 예의(4.30)가 가장 높았고, 자기조절(3.82)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아주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성 중 ‘예의’와 ‘자기조절’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예

의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회복탄력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 개인의 성장이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즉, 어른의 성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V-51> 인성수준 세부영역별 회복탄력성 간 편상관관계

인성수준	구분	회복탄력성									
		감정조절력	충동조절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개인적차원	자기 존중	상관계수	-.042	.386*	-.040	.004	-.061	.013	-.036	-.024	.002
		Sig.(양쪽)	.406	.048	.426	.944	.224	.794	.479	.635	.962
	자기 조절	상관계수	.392*	.047	-.013	.305*	.048	.036	.308*	.050	.313*
		Sig.(양쪽)	.047	.350	.805	.038	.338	.481	.033	.327	.025
	정직 용기	상관계수	-.034	.040	.383*	.006	-.017	.002	.010	.016	.002
		Sig.(양쪽)	.498	.424	.049	.913	.744	.963	.842	.748	.967
대인적차원	배려 소통	상관계수	.035	.053	-.015	-.056	-.013	.071	.037	.060	.052
		Sig.(양쪽)	.488	.296	.760	.265	.800	.163	.468	.236	.304
	예의	상관계수	-.068	-.043	.006	-.065	-.028	-.057	-.058	-.304*	-.016
		Sig.(양쪽)	.177	.394	.904	.200	.576	.262	.248	.040	.757
	사회적 책임	상관계수	.014	-.002	.025	-.009	.030	-.025	-.032	.016	-.060
		Sig.(양쪽)	.776	.962	.621	.853	.548	.623	.526	.755	.238
사회적차원	정의	상관계수	.035	.000	-.013	-.002	.022	-.022	.032	-.050	.008
		Sig.(양쪽)	.487	.992	.790	.967	.658	.667	.522	.319	.871
	시민성	상관계수	.020	-.005	-.011	.036	.057	-.005	-.067	.026	-.081
		Sig.(양쪽)	.699	.927	.831	.474	.257	.917	.185	.603	.107

주1) 보편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0.50~0.60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0.30~0.40이면 약한 상관관계, 그리고 0.20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주2) * p<.05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사회의 긍정적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 개인적 특성인 인성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필요한 실천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청소년들과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기관 및 교육현장, 가정 및 사회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부모의 인성수준정도는 총 8개 영역 중 예의가 4.30(86.0%)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조절이 3.82(76.4%)로 가장 낮았다. 부모들의 인성 수준 영역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배려와 소통, 자기조절에 대한 의식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3명인 집단의 시민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0대 미만보다 시민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시민성 등 4가지 영역에서 대학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의 직업군에 따라서는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시민성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무직군, 자영업군, 서비스직군, 기타 직업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자기존중, 배려와 소통,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거주기간별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지수의 평균은 총 27문항으로 135점 중 101.2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103.94점, 여학생은 99.16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101.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 동지역 101.475, 서귀포시 읍면지역 101.14점, 제주시 읍면지역 99.25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력은 평균 3.64점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원인분석력 3.83(76.6%)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조절력 3.75(75.0%), 충동통제력 3.34(66.8%) 순으로 나타나,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중 충동을 통제하는 정도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각 하위요소 모두에서 남학생의 긍정 응답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 응답의 경우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지역별로는 감정조절력과 원인분석력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80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아확장력 3.89, 공감능력 3.87, 소통능력 3.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능력 각 하위요소 모두에서 긍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대인관계능력 각 하위영역에서 주거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긍정성은 평균 3.81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감사 4.08, 자아낙관성 3.72, 생활만족도 3.6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모든 영역에서 긍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주거지역별로는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 중 긍정성 영역의 평균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3가지 영역별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모두 정(+)의 관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조절력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도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었는데, 특히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역별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3가지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제주지역 고등학교 남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여학생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인성수준과 자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인성 중에서 개인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정(+)의 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자원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한 부모의 개인적 자원 중 정직과 용기는 청소년들에게 원인분석력($r=.383$)과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의 자기존중은 청소년의 충동통제력($r=.386$)과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자기조절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중 감정조절력($r=.392$), 소통능력($r=.305$), 자아낙관성($r=.308$), 감사($r=.313$)와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전 영역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개인적 자원은 청소년들 회복탄력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나 부모의 자기조절 능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 인성의 대인적 자원 중 예의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r=-.304$)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예의 수준이 높은 부모는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결과이다. 이는 어른들 수준의 예의는 청소년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성 중 ‘예의’와 ‘자기조절’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 개인의 성장이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즉, 어른의 성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 개인의 인성만으로 자녀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터’가 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을 비롯하여 교육 정책, 나아가 사회적 환경 등 사회적 지지가 제주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수행하는 역할이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 정책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청소년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과 프로그램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인성이 자녀들의 회복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본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가 초·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그 결과 성인 직전의 고등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지지 못지않게 사회적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사회변인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인성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도출하였다. 부모의 개인적 자원인 자기존중, 정직과 용기, 자기조절은 청소년들에게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대인적 자원인 ‘예의’는 청소년들에게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즉, 어른들의 개인적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목표 및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대적, 상황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시대의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세대, 계층, 직업군 등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사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의 흐름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지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 신우열·김민규·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제55호, p.105-131
- 권유경, 정소희,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67호, p.219-243
- 박기령·최중진, 2016, ‘청소년 레질리언스(resilience)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0호, p.451-478
- 송옥선, 2006,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탄력성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학위논문
- 유안진,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 23(23), p.123-132
- 이민수, 2017, ‘개인적 회복탄력성이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4 No.3, p.153-174
- 이은수, 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 외, 2014,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군생활적응의 관계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7권 1호, p.63-95
- 정은주, 2017, ‘청소년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초당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
- 조규필, 2004,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홍섭, 2003,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인성덕목의 분류와 요인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3 No.1, p.109-140
- 채일숙, 201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인성 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현은민, 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과 한국판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관계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9(4), p. 121-143
-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p.45-67
- Gjerde & Block, 1986, Egocentrism and egoresilienc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spective-taking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423-434.
-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Rutter,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Tellegen & Garmezy,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97-111.
- Werner & Smith,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childhood*, NY: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recent drastic changes in Jeju's community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family community. These changes in the family community are causing changes in the values and attitude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and cause various family problems and affect problem-solving approaches. In particular, the 'restore elasticity of recovery', which has been viewed as an important value of the family community, faces an important turning point, but there is no investigation or study.

The changes in the family community and family problems in Jeju society are long-term and structural problems, and can be seen to be shaping the identity of the new Jeju family community. Therefore, through the study of the resilience of the Jeju Family Community, it is timely to study the change in identity of the Jeju family community and the change in community identity.

The present study analyzes parents' level of personality, teenagers'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s. Eight areas were surveyed for parents' personality, and nine areas in 3 categories for teenagers' 'restore elasticity of recovery'.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changes and growth in the Jeju Community Family Community. Furthermore, i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the discussions on Jeju's regional identity for its future directions. Through periodic, systematic studies on 'restore elasticity of recovery', studies on changes in Jeju's identity need also to be undertaken.

1차 자문회의록

과 제 명	2018 기본과제연구 :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일 시	2018년 5월 9일 13:00 ~ 14:30
제 목	연구에 따른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설문지 구성 등에 대한 자문회의
장 소	제주학연구센터 회의실
참 석 자	현혜경(연구책임자) 부혜은(공동연구자), 문순덕(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진연주(자문위원, 제주대 강사), 허유순(자문위원, 제주대 강사)
구 분	내 용(요약)
	<p>○ 연구기획과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 제주지역 가족 공동체 변화 연구와 정체성 변화 연구 설명</p> <p>○ 질의와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용어 및 개념 : 학계 보편적 개념인지에 대한 질의와 응답 · 가족의 범주 : 핵가족인지에 대한 질의와 응답 · 연구기간 : 4월 -11월 · 홍보방향 : 교육청을 통한 홍보를 기본으로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하고 설명 · 조사대상 : 고등학교 2학년을 주 대상으로 학생과 동일한 부모 · 조사범위 : 제주시 고등학교 200부, 서귀포시 고등학교 100부 예정 (모집단 : 제주시 고등학교 20개, 서귀포시 고등학교 10개 합계 30개) · 사전조사 : 인문계고등학교 1곳, 실업계고등학교 1곳, 부모대상 시행 <p>○ 자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범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실업계 및 인문계+여학생 및 남학생 변수 고려 · 조사 시 유의사항 : 설문 시 학생과 부모는 별도로 조사를 하여,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설문지에 대한 답을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유효한 정책을 산출하기 위해 관련 부모 간담회 개최 제안 · 500부 정도의 여분 설문지를 배포하여 확실한 300부 설문지 확보 요청 · 제주도청,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부모-자녀의 역할 등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이 중요

· 설문지 추가사항

- 도와 교육청 등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설문 문항
- 인성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명시 혹은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된 문항 삭제
- 부모-자녀 동일한 일련번호 부여하고 설문지 분리
- 설문지 제목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로 수정
- 기본사항에서 배우자에 대한 문항 삭제
- 중복 기재 문항은 순위 추가 등

2차 자문회의록

과 제 명	2018 기본과제연구 :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일 시	2018년 9월 19일 16:00 ~ 17:30
제 목	2차 자문회의
장 소	제주연구원 2층 소회의실
참 석 자	현혜경(연구책임자) 부혜은(공동연구자), 문순덕(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진연주(자문위원, 제주대 강사), 김석윤(자문위원, 공공정책 연구소 나눔 소장)
구 분	내 용(요약)

○ 서론과 진행된 통계에 대한 기본적 설명

- 제목 : 제주지역 가족 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부모인성과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가족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이란 주제 아래 부제를 추가하기로 함

-> 연구 설계에서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약한 상관관계성을 찾음. 따라서 가족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부모의 인성과 자녀의 회복탄력성의 변수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됨

- 최종 활용된 표본의 크기는 부모 445명, 자녀 717명
- 조사되어진 영역별로 소결 추가하고자 함

○ 자문내용

- 추가 사항

1. 부모인성, 자녀 회복탄력성 관련 설문지 추가
2. 연구 초안이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결과들을 보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꼭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졌으면 함
3. 부모 인성의 영역별 수준에 대한 차이와 자녀의 회복탄력성 영역별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던 교차분석 표의 경우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리가 필요
4. 교차분석의 경우 긍정과 부정만 활용할 것이라면 ‘보통이다’ 응답을 뺀

나머지를 100%로 다시 정리하거나 ‘보통이다’를 넣을 경우 3점 척도로 봐도 무관할 듯

5.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경로분석을 시도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연구결과별로 타 시도나 국가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이 있다면 추가하고 제주도만의 독특함이나 특이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7. 연구 제한점이나 연구 제약에 대한 설명이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 추가 · 추후 연구조사 방향
 - 1) 제주도내 회복탄력성을 확인하는 기초 연구가 주기별, 세대별, 직종별로 진행되어야 필요성 대두
 - 2) 이번 연구로 인해 부모가 자녀들의 회복탄력성에 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환경이나 학교 및 관련기관의 교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3)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가 필요한데 영역별 정체성 연구를 위한 지표를 체계화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즉, 지표개발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
 - 4) 가족의 범주 : 서론에서 이혼 가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 이상 가족형태별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는 설문지 구성에서 제약이 있는 과정(교육청 홍보)으로 인해 가정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지를 구성 할 수 없었음. 이는 20대 이전 세대의 조사를 위해서는 홍보 방안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부록1(부모용 설문지)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부모님용>

NO.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로서 제주지역 가족공동체의 인식 및 정체성 변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없으니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사항은 제주지역 가족공동체의 변화를 확인하고 나아가 제주지역 가족공동체의 정체성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가족공동체 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되며, 조사의 결과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향후 제주지역 내의 가족공동체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인성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 6.

주관기관



※ 조사문의 : 책임연구원 현 혜 경(hhyun@jdi.re.kr / 064-726-0973)
공동연구원 부 혜 은(bhe5282@naver.com / 064-726-0973)

【응답요령】 해당 문항마다 각 항목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평소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2. 귀하는 평소 자녀에게 바른 행동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바른 모델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② 바른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바른 모델이 조금 된다고 생각한다
- ⑤ 바른 모델이 매우 된다고 생각한다

3. 귀하의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②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많이 활동한다 ⑤ 매우 많이 활동한다

4. 귀하의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이야기 나누기 ② 문학적 접근(동화, 인형극) ③ 현장학습(체험하기)
-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⑤ 기타()

5.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가족이 비협조적이라서
- ④ 사회전반의 학벌주의 풍토라서 ⑤ 기타()

6.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이 있으면 참석하시겠습니까?

- ①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 ② 참석하지 않겠다 ③ 보통이다
- ④ 가끔씩 참석 하겠다 ⑤ 적극 참석하겠다

7.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② 잠재력의 개발
- ③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④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 ⑤ 전인적 인간 발달과 전인적 건강증진
- ⑥ 기타()

8. 아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하나에 √표 해 주십시오.

응답 항목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고민이나 갈등을 잘 해결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인이 화가 나 있거나 슬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실수를 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주변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단체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으로 지인의 인권(생명, 자유, 평등 등을 보장받을 권리)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지구촌 난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회사 회의나 가족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노력한(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형편과 여건(학업능력/가정여건/외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세계의 공통문제(환경, 인권, 빈곤, 세계평화 등)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지인이 상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주변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주어진 업무나 분위기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을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집단(예 : 회사/지역사회/국가 등)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자녀 수	()명
3) 연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4)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 수료 및 졸업 ③ 대학원 수료 및 졸업 이상		
5) 직업	① 1차 산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 ④ 기술/노무직 ⑤ 행정/사무직 ⑥ 전문직, 교사, 공무원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		
6) 주거지역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7) 가구월평균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400만원 미만 ④ 400~600만원 미만 ⑤ 600~800만원 미만 ⑥ 800만원 이상		
8) 제주도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9년 미만 ⑥ 9년 이상		
9) 연락처	e-mail : 연락처 :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1(학생용 설문지)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학생용>

NO.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로서 제주지역 가족공동체의 인식 및 정체성 변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없으니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사항은 제주지역 가족공동체의 변화를 확인하고 나아가 제주지역 가족공동체의 정체성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가족공동체 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되며, 조사의 결과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향후 제주지역 내의 가족공동체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인성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 6.

주관기관



※ 조사문의 : 책임연구원 현혜경(hhyun@jdi.re.kr / 064-726-0973)
공동연구원 부혜은(bhe5282@naver.com / 064-726-0973)

【응답요령】 해당 문항마다 각 항목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아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하나에 표 해 주십시오.

응답 항목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주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재미있는 농담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 맞는 적절한 말을 잘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친구가 화를 낼 때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주거지역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3) 연락처	e-mail :	연락처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진

연구책임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공동연구 부혜은

제주학연구 54

제주지역 가족공동체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발행인 || 김동전

발행일 || 2018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도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097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제주문화상사

ISBN : 978-89-6010-636-9 93330(비매품)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